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석사학위논문

한국과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비교연구

KOICA 및 JICA를 중심으로

2020 년 2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김엘리나

Master's Thesis of International Studies

A Comparative Study o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Toward Central Asia by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KOICA and the JICA

February 2020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Major
Kim Elina

한국과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비교연구

- KOICA 및 JICA를 중심으로 -

지도 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 년 2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김엘리나

김엘리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 년 2 월

위 원 장 _____ 김태균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Erik Mobrand _____ (인)

위 원 _____ 박태균 _____ (인)

초 록

한국과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비교연구 KOICA 및 JICA를 중심으로

김엘리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다섯 공화국과 독립 이후 한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국가별 협력관계와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KOICA와 JICA를 중심으로 對(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한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접근 차이점이 무엇인지 두 국가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독립한지 28년이 된 상대적으로 신생 국가 5개국은 국가가 정체성을 되찾기, 민주화 과정, 인적 개발에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의 개발 OD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국제기구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협력과 소프트 파워 등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원조에 주목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한국과 일본이 중앙아시아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서 러시아, 중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보다 중앙아시아에 대하여 관심을 뒤늦게 가지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중앙아시아와 1990년대부터 협력외교를 시작하여 해당국가와의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ODA 정책을 추진하였다.

KOICA와 JICA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이 다방면적이며 국가들의 경제적·사회적 영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대륙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고대로부터 실크로드의 요충지이다. 두번째, 지경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국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여서 천연자원이 필요한 까닭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는 내륙 및 카스피 해에 석유, 천연가스로 유명하며 에너지자원 및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다. 또한 카스피 해에 접근 국가들이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상품수출 및 자본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세 번째 원인은 지전략적으로, 아시아권 국가들의 안보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부

터 국경이 인접하여 테러의 전개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기에 중요한다. 또한 에너지 안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중앙아시아의 전략·협력적 다각화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므로 국교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KOICA와 JICA의 대중앙아시아 ODA 추진체제와 정책, 규모와 추이, 유형과 지역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OICA와 JICA가 중앙아시아에 모두 지원하는 권역별로 해외사무소가 배치되어 있고, KOICA에서는 중동·CIS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라크), JICA에서는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로 구별되어 권역에 차이 있다. 두 국제협력기구의 정책 틀도 유사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별 사회적 환경 특징을 고려해서 적절한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정책 틀 측면에서 전체 ODA에 대한 정책, 중기정책, 국별 정책, 분야별 정책 등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 KOICA와 JICA가 공통된 ODA 정책 틀을 가지고 있다.
ODA의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ODA 규모는 일본에 비해 격차가 있지만 한국 ODA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개발협력 비율은 보면 KOICA가 중앙아시아의 11.1%를 차지하고 JICA는 중앙아시아 ODA 비율이 한국보다 두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ODA 추진 체계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ODA의 분야별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 유입된 ODA를 부분별로 분류하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70.9%)이 전체 분야별 원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 인프라, 인적 개발에 교육 원조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은 ODA의 목표가 거의 흡사하다.
KOICA와 JICA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 시기에도 양국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2000년대 중반에 중앙아시아에 대하여 로드맵 (Roadmap)을 형성하며 외교정책과 ODA 제공을 정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중앙아시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한국의 중점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에 ODA를 중심으로 제공한 반면에 일본은 중점국가를 설정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국제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에 대해 불신이 남아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구 소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ODA 진출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권위주의자 부정부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며 정치 엘리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합리적 ODA 제공을 통해 중앙아시아 경제·사회 발전에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주요어 : 한국, 일본, 중앙아시아, 협력 정책,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학 번 : 2017-25117

약어 (Abbreviations)

CACO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 협력기구
CAP	Country Assistance Program	국별지원프로그램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개발프로젝트사업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EU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 경제협회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JDS	Japan Development Service	일본개발서비스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일본무역진흥기구
JF	Japan Foundation	일본국제교류기금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JSP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일본학술진흥회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
KF	Korean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KJC	Kazakhstan-Japan Center for Human Development	카자흐-일본 인적자원개발센터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RJC	Kyrgyz Republic-Japan center for Human Development	키르기즈-일본 인적자원개발센터
LICs	Low income countries	저소득 국가
LMICs	Lower-Middle Income Countries	저중소득 국가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밀레니엄 개발 목표
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한국); 외무성 (일본)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VOP	One Village One Product	일촌일품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
SOM	Senior Officials Meeting	고위급회의
SRS	State registration service	국가등록청
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업기술교육
WIS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국민후생개발전략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UJC	Uzbekistan-Japan Center	우즈벡-일본 센터
UMICs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상위 중소득 국가
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UN	United Nations	유엔

목 차

국문초록 i
약어 iii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문제제기 4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5
제 4 절 연구 방법 13
제 2 장 개관 14
제 1 절 중앙아시아 개괄 15
제 2 절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와의 협력관계 전개과정 17
제 1 항 한국과 중앙아시아와의 협력관계 전개 18
제 2 항 일본과 중앙아시아와의 협력관계 전개 20
제 3 장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협력전략 및 정책 현황 특징 24
제 1 절 KOICA의 대중앙아 정책 현황 24
제 1 항 우즈베키스탄 27
제 2 항 카자흐스탄 34
제 3 항 키르기즈스탄 36
제 4 항 타지키스탄 38
제 5 항 투르크메니스탄 39
소결 40
제 2 절 JICA의 대중앙아 정책 현황 42
제 1 항 우즈베키스탄 50
제 2 항 카자흐스탄 52
제 3 항 키르기즈스탄 54
제 4 항 타지키스탄 58
제 5 항 투르크메니스탄 59
소결 61
제 4 장 KOICA와 JICA의 비교 분석 62
제 1 절 유사점과 차이점 63
제 2 절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 67
제 1 항 중앙아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67
제 2 항 중앙아시아의 차별화된 인식 70
제 5 장 결론 72
제 1 절 결론 및 논의 72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74
참고문헌 76
Abstract 81

표 목차

[표 1-1] 중앙아시아 KOICA와 JICA 사무소 현황 14
[표 2-2] 일본의 중앙아시아 초기 ODA 상황 21
[표 2-3] 2000-2016년 나라별 JDS 현황 23
[표 3-4] 중앙아시아 지역 사업 유형별 지원실적 27
[표 3-5] 우즈베키스탄 ODA 전략 28
[표 3-6]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 전략 31
[표 3-7] KOICA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31
[표 3-8] 대우즈베키스탄 EDCF 승인 사업 내역 33
[표 3-9] KOICA 키르기즈탄에서의 사업 목록 37
[표 3-10] KOICA 타지키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39
[표 3-11] KOICA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40
[표 3-12] 한국의 중앙아시아 공여 현황 (2011-15년) 41
[표 3-13] JICA의 중앙아시아 ODA 정책 방향 (2016년 기준) 43
[표 3-14] 일본의 중앙아 ODA의 핵심 사업과 국가별 지원 내용 45
[표 3-15] 중앙아시아에 JICA 프로그램 (재정 2017) 47
[표 3-16] 중앙아시아 일본의 수출입 현황 48
[표 3-17] JICA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51
[표 3-18] 일본의 우즈벡 주요 부문에 대한 공여현황 (2011-15년) 52
[표 3-19] 일본의 카자흐스탄에서의 ODA 현황 53
[표 3-20] 일본의 카자흐 주요 부문에 대한 공여현황 (2011-15년) 53
[표 3-21] 일본의 키르기즈스탄에서의 ODA 현황 55
[표 3-22] JICA의 키르기즈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56
[표 3-23] 일본의 키르기즈스탄 CAP 주요 내용 57
[표 3-24] 일본의 키르기즈 주요 부문에 대한 공여현황 (2011-15년) 57
[표 3-25] JICA의 타지키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59
[표 3-26] 일본의 타지크 주요 부문에 대한 공여현황 (2011-15년) 59
[표 3-27] 일본의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ODA 현황 60
[표 3-28] 일본의 투르크멘 주요 부문에 대한 공여현황 (2011-15년) 61

그림 목차

[그림 2-1] 중앙아시아 지역 지도 17
[그림 4-2] 중앙아시아 5개국 CPA 주요 공여국 (2011-15년 평균) 66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1년에 갑작스러운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은 자국의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하여 발전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일반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경제 및 정치 환경에서 역할을 강화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중앙아시아 국가 간에 협력이 활발히 이루지면서 주변 강대국과 전세계 국가들과도 협력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대체적으로 개발협력으로 인해 이루어진 원조가 개발도상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간에 활발한 협력 활동을 통해 이웃국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다른 강대국인 미국과 유럽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직 후 유엔(UN), 독립국가연합 (CIS), 중앙아시아 협력기구 (CACO),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ICA), 상하이 협력기구 (SCO) 등과 같은 큰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아시아 국가들 전부 또는 일부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중앙아시아 차원 혹은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 차원에서 창설, 발전되고 있는 지역협력체, 개발원조 분야 등 그 성격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발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①] 대도시가 아닌 작은 도시,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 기반 시설(인프라) 등이 없으므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정부가 불균형하

[1] 대한민국 ODA 백서 (2017). p. 8

게 재정을 분당하는 바람에 성불평등, 비민주주의 정치체제,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인구증가는 빈곤, 수자원 부족 등 다양한 현안들을 낳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문제,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협력개발기구들은 원조를 제공한다.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는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통로 역할, 즉 '비단길 (silk road)' 역할을 하였다.[2]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1년에 독립을 받은 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극적인 외교 활동을 실현하였다. CIS 회원국 차원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등과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중앙아시아가 한국과 일본 간에 맺은 우호 외교·협력 관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 정책이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ODA 정책 비교 대상 공여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이들의 상이한 원조 전략과 정책의 특징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아시아지역으로의 원조 집중, 그리고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이 일본과 유사한 모델이라고 평가받았는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주목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두 공여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회원국이므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5개국들에 대한 원조를 비교하는 데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다자 협력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반면에 한국은 규모가 작고 단기적 정책을 실시한다. 그리고 일본의 협력기구인 (JICA)가 5개국에 전체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반면에 한국의 협력단인 (KOICA)가 우즈베키스탄을 중점협력국으로서 ODA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정치·협력적 관심이 크게 제고된 것은 에너지·자원 안보를 공통점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평화와 지원 균형을 유지하며, 다른 강대국과 치열한 지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필요하며 이로 인해 전략적으로 이런 중요성을 점증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할 필

[2] 고재남 (2009)

요가 있다는 견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일본의 협력정책, 원조 정책을 토대로 일종의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술협력,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협력, 교류 프로그램, 국별지원프로그램 (CAP)도 마련해서 인적 교류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2004년부터 시작한 '중앙아시아+일본 대화'라는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개최하였고 한국은 2007년부터 출범한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이 연례 고위급 (차관급) 다자협의체를 만들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의 뚜렷한 차이점은 문화·예술 교류에서 볼 수 있는데, 약 50만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을 활용하여 한·중앙아시아 간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한류'를 확산 시키면서 상호 이해증진 및 이에 기초한 양자협력의 확충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정책은 일본의 국제협력단 정책보다 더 포괄적이다. 혹은 대중앙아시아에 매년 협력 분야별로 재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는 다른 측면에서는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문화와 언어적 유사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본어는 틀림없이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사용되는 투르크계 언어와 동일한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문화적 측면과 언어적으로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공통점이 많아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협력정책이 유사한 면도 있지만 전혀 다른 접근법과 전략을 사용해서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 KOICA와 JICA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전략이 어떻게 바꾸게 되었으며, 이 정책과 전략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과정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경제성장의 시사점과 전망을 고찰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제 2 절 문제 제기

중앙아시아 5개국은 독립된 후에 단독 경제부흥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작은 경제규모, 정보유통 제한, 경제적 시장화 약화, 최저의 사회적 자유화 수준 등 중앙아시아에서 아직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는 단독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어렵고 지역의 현안도 해결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위해 국외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 고도경제성장으로 유명하여 성공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정책 모델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의 요점은 한국과 일본의 국제기구들은 중앙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중앙아시아 초기 전략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전략과 정책이 적절하는가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시기적 배경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을 얻은 시점인 1991년 이후이고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협력 정책의 차이점과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 다른 수원국과 차별화된 정책이 무엇인지를 관찰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본 국제협력단 (JICA)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두 국제협력기구에 한계점과 발전점, 그리고 후속연구에 제언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두 나라의 국제협력단은 공적 개발원조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각종 국제협력기구의 자료, 중앙아시아 5개국, 한국, 일본의 기관의 주요 자료, 공식 발표, 공동 성명, 저널과 기사 및 기타 공식 문서를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KOICA와 JICA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의 유사점/차이점, 접근법, 특징 등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KOICA는 JICA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동남아시아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였다. 일본은 한국보다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먼저 구축하고 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ODA의 지원형태, 지원주체, 지원계획 등에 있어 많은 점이 닮아 있으며, 한국 ODA는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참조하고 있다.

가설 2: 최근에는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전략이 동남아시아와 차별화되어 있다. 신 (新) JICA[③]는 동남아시아에 접근과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KOICA도 마찬가지로 2016-20년 계획을 통해 대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변환되었기 때문이다.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기존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정책, 자원개발, 경제협력 등과 관련된 주제가 대부분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대중앙아시아를 위해 시작한 협력관계는 아시아 안보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지금의 국가들의 개발분야 협력에 포괄적인 자원·인적 협력을 강화하고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한국과 일본의 개발원조 추진체제와 정책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중앙아시아의 JICA와 KOICA의 정책과 현황,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협력 특징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큰 틀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중앙아시아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와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중앙아시아에 개발원조를 진출하는 한국과 일본의 국

[3] 2008년 10월에 신 (新) JICA 등장하였다. (JICA homepage; history)

제협력기구 비교와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를 두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 원조 현황, 국가별 특징, 추이 등으로 구분되며 둘째, KOICA와 JICA의 ODA 비교를 드러낸 주제로 나눌 수 있다.

1.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에 관한 선행 연구

이지은 (2013)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자원외교 정책을 비교하며 일본 원조정책을 모범사례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자원외교 정책 실행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원외교 정책의 특징은 아시아권 나라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며 중동에 비해서 정치·안보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한국과 일본의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주목할 점은 중국, 인도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증하는데다 시리아 사태로 촉발된 중동의 불안한 정세는 세계 에너지안보를 더욱 위협하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신흥 에너지 소비국과 기존 소비대국들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자원 매장지역으로 전략적 진출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조적인 면에서 일본과 한국은 자국의 에너지안보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에너지자원 수급노선을 다각화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적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자원 수급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자원외교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④
김태황 (2016)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에 대한 ODA의 활용도를 분석하여 원조와 국제통상의 이슈를 연계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경제협력과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밝혔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강대국들 간에도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한국과 경제협력 강화

[4] 이지은 (2013)

가 필요하다고 재확인되었다.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ODA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고 교역규모에도 국가별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저자가 한국의 원조 규모가 작아서 5개국들의 경제 개발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2000년 한국의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공여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온 점은 긍정적인 기여 도로 평가되었다.[5]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중앙아시아에 대한 ODA의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 ODA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택래 (2011)의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초기에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여 과감한 투자로 중앙아시아에서 붐을 일으켰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으로만 아니라 문화, 사회적 개발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때 한국의 중앙아시아 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중앙아시아내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가 높다. 더 나아가 한국과 같은 경우 문화적으로 유사한 동질감과 친밀감을 갖고 있고 한인 동포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원만하다고 지적하였다. 50만 여명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이 대중앙아시아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문화·사회적 협력 분야는 일본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자원개발의 특징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다. 물론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을 개발 확보하기 위해 다른 강대국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협력개발에 경험이 많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지역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열악한 탐사·개발환경의 문제이다. 열악한 수송 인프라, 물류체계의 건설과 구축이 필요한 점이 발

[5] 김태황 (2016)

협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6]

Miteva B. (2015)의 연구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이미지, 관심사, 전략 또는 양국간과 다자간 협력에 대한 중점을 둔다. 중앙아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핵폭탄의 최초이자 유일한 희생자로서의 역사적 역할로 인해 중앙아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동정심을 가졌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었는데 특정 문화, 세계의 기술과 경제의 리더 자리를 차지한다고 인식된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일본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지역의 특정 외교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비군사적 정책을 가지며 경제적 문화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역에서 열린 외교 태도를 보여준다. 물론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방향과 협력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 (에너지 협력), 인도주의 (사회경제적, 교육적 개발), 정치 (지역의 민주화)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자가 일본의 개발협력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더 중요시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는 2004년 이후 새로운 단계로 변화되었고, 2015년에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일본 총리 아베의 연설에서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에 '자유와 번영의 아크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연설하였다. 이 전략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 시장 자유 등과 같은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실행하는 소프트파워의 사례를 국제협력개발의 모범사례로 삼았다.[7]

2004년에 개최로 시작된 "중앙아시아+일본" 대화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일본 간에 외교관계 강화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개발 정책과 원조 제공이 증가세를 보여주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이끌었다. 또는 2007년에 출범한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이 개최된 후 나라 간 협력관계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6] 조택래 (2011)

[7] Miteva B. (2015)

Rakhimov (2013)은 21세기에 들어가 중앙아시아 위상이 부상되며 인도, 한국, 일본을 포함한 새로운 엑터들의 (actors) 활성화가 이 지역에서 환영을 받았다. “중앙아시아+일본” 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다자외교 (Multilateral relations)의 일부이다. 동시에 중앙아시아와 일본 관계에는 몇 가지 도전해야 할 것과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미래의 양자 및 다자 관계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일본의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각각의 정책과 주요 지원 프로젝트를 모색하였다. 한국과 인도처럼 일본은 중앙아시아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광대한 아시아 대륙과의 지역 간 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가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카와토 우즈베키스탄 주 일본 대사에 따르면, 키르기즈스탄은 일본의 주목을 받은 중앙아 최초의 국가었지만, 경제 규모가 작으며 키르기즈 정부가 이런 큰 지원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관심이 옮겨졌다. 석유 매장량이 많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을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매우 중요한 지원은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 지역의 핵실험 결과 재앙의 결과 제거와 아랄 해 보존에 생태 재앙의 결과 제거에 대한 지원이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그 동안 중앙아시아와 일본의 다자간 파트너십에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성공은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다.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이니셔티브 내에서 국가 간 관계에 대한 기능주의 모델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계획은 명확한 목표 정의가 필요하며 제한된 수의 부문과 영역으로 시작하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8]

T. Dadabaev (2017)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주요 3개국 중국, 일본, 한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실크로드 외교 이니셔티브 특징을 밝혔다. 이 지역을 향하여 발전한 관심과 외교 정책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일대일로 (OBOR: One Belt One Road), 일본의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아베 총

[8] Rakhimov (2013)

리의 실크로드 외교, 한국의 노무현의 2006년 중앙아시아 이니셔티브, 이명박의 2009년 뉴 아시아 이니셔티브와 박근혜의 2013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중요하게 여겼다. 일본의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주요 이니셔티브는 "ASEAN plus 3 (중국, 일본, 한국)" 모범 모델이 되었으나 중앙아시아에 적용함으로써 일본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청사진 활성화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중앙아시아와의 개발협력은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므로 개발 잠재력을 높이 평가되었다.[9]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개발협력에서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본고에서 나타났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협력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제2기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되었다. 2016-2020 중점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본고에서 몇가지 전략방안을 제사하였다. 이경희 (2017) 연구에서는 제2기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 (CPS)에서 국제개할협력 분야로 선정된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농업분야의 기초 경제 환경과 분야별 개발 수요 및 현황 조사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10] 우즈베키스탄은 농업국가이고 농촌 인구가 49%를 차지하고 농업분야에 중점협력 사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문제점은 한국의 제1차 중점협력국가 사업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분야가 제외되어 일반적인 농업관련 기본 현황만을 파악하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직접 나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후생개선전략 (WIS: 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을 수립하여 농업과 농촌분야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2. KOICA와 JICA의 ODA를 비교에 관한 선행 연구

[9] Dadabaev (2017)
[10] 이경희 (2017)

한국과 일본의 ODA 정책은 중앙아시아가 우선수위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한국과 일본의 ODA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위주로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은 ODA를 제공하는 가장 큰 공여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에 한국도 OECD DAC에 가입하여 개발원조 공여국으로 급부상하고 세계 수원국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개발협력 원조와 관련 논문과 연구들이 주로 실행되었다. 여기서 KOICA와 JICA의 국가별, 사업별 등과 관련 비교 연구를 정리해서 살펴봤다.

박정호 외 (2017)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국가 간 새로운 협력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관련 지표들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현황을 밝혔으며,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신(新)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 (농업개발, 인적자원 개발, 무역원활화, 수자원관리,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중점 개발과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본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 지원, 원조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산하 JICA가 유·무상 양자원조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일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차관을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하나 언급한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KOICA 사무소가 개설되면서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다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정책 동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혜승 (2012)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분야 ODA의 추진체제, 정책, 규모, 추이, 지역별 특징을 밝혔다. 미국, 스웨덴 등 선진공여국들이 기초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해 강조하며 중요성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한국 ODA의 경우 아직까지 기초교육 OD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KOICA 개발협력에 지원한 비율이 평균 6.0%에 불과하여

지원이 미미한 상태이다. 그래서 한국의 기초교육분야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JICA의 기초교육분야 부분을 비교하여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에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비교사례로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번째 일본은 교육분야를 ODA의 핵심 사업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한국과 일본은 ODA 정책, 지원형태, 지원주체, 지원계획 등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고, 한국 ODA는 많은 부분 일본의 경험을 모방해왔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초교육 ODA에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논의를 제시하였고, 기초교육'의 정의와 대상이 누구인지, 그에 대한 개념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Oh Jinhwan (2017) KOICA와 JICA의 교육분야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장기 장학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수원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혔다. KOICA의 장학금 프로그램 (long-term scholarship program) 2007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고 매년 개발도상국 장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Japanese Grant Aid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 (JDS)를 통해 석사 과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두 국가간의 장학금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ODA 규모, 지원 국가 범위, 국가별 지원 가능한 교육분야 등에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인프라와 관련된 전공으로 배정되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JICA의 JDS 장학생과 KOICA 장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는 일본은 예비 학생들과 졸업생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다. JDS 프로모션 박람회, 직접적 인터뷰, 동문모임 등이 잘 마련되었고 많은 강의도 진행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장학생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장학생을 뽑을 때도 인접성이 적고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곤 하여 KOICA 기관을 방문하도록 초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다.

Choi Jongsan (2013)의 연구에서는 캄보디아를 중점투자국가로 선정하고 ODA를 통해 개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농업 농촌개발분야에서 실행하고 있는 ODA사업의 가장 많이 ODA를 제공하는

JICA 비교를 통하여 향후 한국과 캄보디아와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ODA 사업의 투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JICA와 KOICA의 투자규모는 약 44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에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기간도 늘려야 하며 단기간에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의 ODA 투자도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11] ODA의 규모와 사업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JICA사례를 주목하여 KOICA의 ODA사업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 4 절 연구 방법

본 논문은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 한국과 일본이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시점부터 삼을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저성장을 겪으면서 체제 전환기에 각 나라마다 경제개발전략 수립하였다. 혹은 경제부흥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많은 나라들과 협력관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비슷한 시기에 구축하였다.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지역 범위는 중앙아시아의 5개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받아서 현재까지 비슷한 발전과정을 겪어 왔다.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 소련과 러시아 문화의 혼합성, 천연자원 수출의 비중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연구의 대상인 중앙아시아 5개국은 KOICA와 JICA와 국가 간에 쌍방향적이면서도 일방적으로 발전과 협력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삼았다.

---

[11] Choi Jongsan (2013)

<표 1-1> 중앙아시아 KOICA와 JICA 사무소 현황

	KOICA	JICA	비고
우즈베키스탄	o (CPS)	o	중점협력국 (LMIC)
키르기즈스탄	o	o	일반협력국 (LMIC)
타지키스탄	x	o	일반협력국 (LIC)
카자흐스탄	x	x	일반협력국 (UMIC)
투르크메니스탄	x	x	일반협력국 (UMIC)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문헌과 논문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협력 현황 및 전략에 대한 제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국제기구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색한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을 진행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고찰하기 위해서 관련 문서와 KOICA와 JICA의 정책보고서, 연간보고서, 사업보고서, 뉴스 기사 등을 검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5개국 관련 협력기구 보고서와 국내외 문헌연구를 활용하였다. KOICA와 JICA의 정책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내용을 토대로 관련 프로젝트 보고서, 기사, 연구물들을 포괄적으로 모아서 분석하였다.

제 2 장 개괄

이 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일반적인 개황, 협력개발 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 구축 과정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제 1 절 중앙아시아 개괄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신생 공화국 15개국이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5개국이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에 포함되어 있다. 말 그대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범주에 대한 정의 다양하고 출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곤 한다. 넓은 범위로는 몽골, 러시아 시배리아 일부 지역, 파키스탄 북부, 중국 칭하이성, 티베트고원,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까지 포함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본 연구는 가장 제한적인 정의는 소련의 공식적인 공화국 5개 구성국으로 삼았다. 이들 국가는 총면적이 400만km²이고 총인구는 6천9백24만1040명 (2017)[12] 이 정도이다. 중앙아시아라는 용어는 1843년 독일의 지리학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 (Alexander von Humboldt) 처음에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스탄" 접미사의 뜻은 "의 땅"이라는 의미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1993년 회합을 열고 '-스탄'이 들어가는 역내 5개국을 중앙아시아로 칭하기로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결정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페르시아 문화, 튜르크 문화, 러시아 문화, 유럽 문화, 유목민 문화, 공산주의 잔재, 이슬람과 기독교 신앙 등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각 나라 상세히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크로드의 중심 중앙아시아 보면, 아시아와 유럽,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남북을 있는 내륙통로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동 (東) 으로 중국, 서 (西)로는 카프카스 및 터키, 남 (南) 으로는 이란 및 인도, 북 (北) 으로는 러시아를 사방으로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13]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으며 젊은 지역이다. 구소

---

[12] https://www.populationpyramid.net/ko/중앙아시아/2017/ (검색일: 2019.10.12)

[13] 전대완 2014 한국이 중앙아시아를 가까이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401100059&page=20 (검색일: 2019.10.12)

련 시대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부문에 대한 재정과 정책 지원을 소련정부는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5개국 독립을 받은 후 각 국가들은 정책적 경제 차원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소련의 해체가 대내정책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독립 이후이다. 중동 지역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일 정도로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이 지역에 매장된 원유 (2,500-3,000억 배럴) 및 천연가스 (15조-20조m3)는 미국 내 유전 및 북해 유전 규모를 능가하였다. [14] 2000년대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 자원 보유, 전략적 요충지 등의 특성을 지닌 중앙아시아 지역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외교 및 경제협력 대상지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5] 중앙아시아 영토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공간을 포함하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맥락에서 고려해볼 때, 각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원조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을 개발을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금까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EEU (Eurasian Economic Union)등과 같은 국제개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이루어 가고 있다.

[14] 고재남 (2008). p.55-97
[15] 최정희 (2012)

[그림 2-1] 중앙아시아 지역 지도

출처: google image <중앙아시아 지역 지도>

제 2 절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와의 협력관계 전개과정

한국과 일본은 OECD DAC 회원국가로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ODA를 비롯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과 일본은 정권 역시 1997년 '유라시아 외교를 표방한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세력균형의 향배가 동북아 정세에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안보, 외교,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중요성을 매우 크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교역과 문화의 통로 역할, 즉 '비단

길 (silkroad)'의 중심에 있었다. 지경학적으로, 중앙아시아는 내륙 및 카스피해에 매장된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제 2의 중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전략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대책과 마약밀매 및 유통 등의 중요한 지역이고 아시아에서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에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과 중앙아시아와의 외교·협력 관계를 각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와의 협력관계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과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 전개

한국은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등 개발 관련 범 지구적 과제 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16] 한국정부는 유라시아 국제협력정책 추진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관계 증진 작업을 지속해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진행하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은 1991년 소련 해체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할 때부터 대우, 삼성 등 종합상사들을 선두로 과감한 현지 투자를 진행하였다. 2000년 초반에 한국은 대중앙아시아 자원개발 분야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양자차원의 우호·협력 관계가 개설된 외교정책 방향이었으며, 노무현 정부는 외교의 다원화 및 다 변화차원에서 '중앙아 진출방안'을 채택, 양자 관계의 지평을 중앙아시아라는 다자협력 공간으로 확정되었다. 한-중앙아시아 외교·협력 관계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첫째, 노무현 정부의 "Comprehensive CA initiative", 이명박 정부의 "New Asia Initiative (New Silk Road Initiative)", 박근혜 정부의 "Eurasia initiative"로 중앙아시아와 에너지·자원협력을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부각시켰다.[17]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1월 '중앙아시아 진출방안'

---

[16] 개발협력정책 및 현황
http://www.mofa.go.kr/www/wpge/m_3839/contents.do (검색일: 2019.10.20)
[17] 김영옥 (2018). p. 21-40

을 채택했고, 이후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중앙아 진출방안'에 나타난 협력사안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실용적 외교안보 구상중의 하나로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천명하였고, 이를 2009년 3월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구체화시켰다. '신아시아 협력외교'는 동남아 국가연합 (ASEAN), 중앙아시아 등 인근 아시아 우방 국가들과 실질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강화시켜 나간다는 신 외교정책이다.[18]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외교 정책으로 반영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2007년부터 매년 다자 협의체인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포럼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 차관들 간에 사무국 설립 논의를 개시하며 2017년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을 개설되었다.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독자적 기구가 충족하는 기준이 아니다.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이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유라시아 다자협력 정책의 중요한 결과물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5개국의 외무부 차관들이 참여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 협약을 맺으며 서로의 관계의 향상시키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2018년 11월에 서울에는 제11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유라시아 다자간 협력 정책의 중요한 결과물이나 다름이 없다. [19] 앞으로도 한국과 중앙아시아국가들 간에 상호관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 동기 중에서 하나는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이다. 약 50만 명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한국 정부는 고려인 동포를 위한 지원사업을 설립하여 문화·교육 등에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

[18] 고재남 (2010)

[19]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2. 일본과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 전개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자국의 역할을 확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서방, 러시아, 중국과 차별되는 독자적인 전략으로 중앙아시아를 인식해 왔다. 일본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의 중앙아시아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이 소련 붕괴 이후 시작하였다. 일본의 각각 총리와 외무상에 따라 외교 노선과 정책이 달라졌으며, 접근 의도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중앙아시아와의 외교·협력 관계는 1997년과 2004년을 경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92-1997년 사이에 진행해왔다. 이 단계는 1997년까지 일본의 중앙아시아 협력 정책이 '조용한 개입 (Quiet Engagement)' 이란 전략으로 상징된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선적 이해를 가진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자국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배양해온 일본의 '원조외교'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20] 1997년에 일본정부는 대중앙아시아 외교를 적극 전개한다는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공화국과의 안보대화를 추진하였다. 일본은 구소련 영역인 이 지역들과의 안보교류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21] '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시점' 등 3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대 러시아 외교를 전개하며 아울러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외교를 전개할 뜻을 밝혔다. 특히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양자간 교류확대를 천명, 이른바 양자주의에 입각한'신 실크로드 외교'의 출발을 선언하였다.[22] 그렇지만 지역주의 주도권을 둘러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쟁관계로 인해 일본의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와의 관계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다가 2004년 8월 가와구치 외상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장관급 다자적 대화를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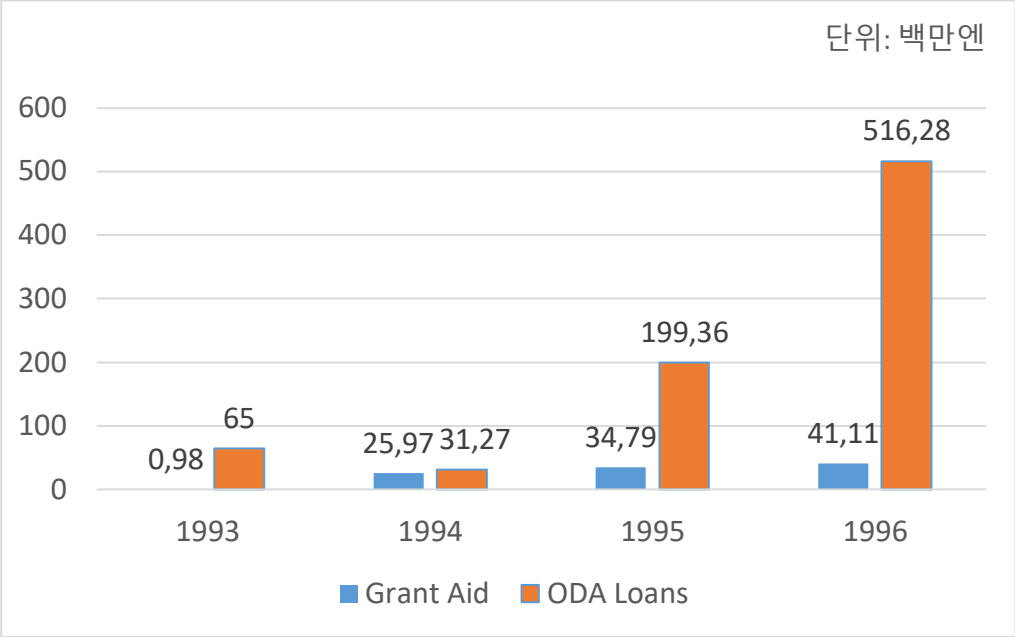
---

[20] 이재영, 박상남 (2007)
[21] "일본, 중앙아시아와 안보대화 추진", 중앙일보 (1997.09.02) https://news.joins.com/article/3511078 (검색일: 2019.08.15)
[22] 남기정 (2006)

하겠다는 '중앙아시아+일본 대화'이란 새로운 정책결정을 내리게 되었다.[23] 가와구치 외상이 발표한 이 새로운 다자주의적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정책에 의하면, 일본은 양자주의간 아닌 다자주의로 지역전체와의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역내합력을 위한 자조노력을 일본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원래의 정책적 협력의 내용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첫째, 테러리즘의 근절, 마약중독 확산의 방지, 빈곤퇴치, 둘째, 지뢰제거, 공중보건서비스의 영역 확대, 셋째, 장기적으로는 환경문제, 수자원, 동력, 외국무역, 수송 문제 등의 협력이다.[24]

일본은 그 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의 핵무기 폐기작업을 지원하고 정부개발원조 (ODA)를 제공 등 다방면적으로 관계를 강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표 2-2> 일본의 중앙아시아 초기 ODA 상황



출처: Japan's ODA Annual report 1997 (MOFA homepage 참조)

일본의 ODA 1997년 연간보고서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고 중앙아시아 4개국 개발협력 지원 방향은 국가 민주화와 경제시장의 전환에 있어

[23] 현진덕 (2007). p. 316
[24] Rizayev A. (2005). p. 14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표 2-2> 나오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원조 제공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2017년도와 2018년도는 일본과 중앙아시아와의 관계에는 4가지 중요한 기념으로 기록되었다. 첫째는, 2017년에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에 외교관계 수립 25주년이 되었다. 둘째, 20주년으로 기념되는 중요한 사건은 1997년 7월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러시아와 중국, 옛 소련권 국가들을 포함한 '유라시아 외교 구상 (Eurasian Diplomacy as Viewed from the Pacific)'을 발표하였다. 셋째, 유라시아 외교는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동한 실크로드 액션 플렌 (Silk Road Action Plan)으로 알려진 일본 외교 이니셔티브를 진행되었다. 유라시아 외교 구상은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와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로운 유라시아 대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25] 마지막으로 1998년에 타지키스탄 유엔 평화 유지 (UN peace-building) 임무 기간에 일본 학자 아키노 유타카의 피살 사건이다. 이 비극적 사건은 9.11 테러 사건 징조가 되었는데, 일본 학자, 공동체, 정부 부내 등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인간안보에 대한 기여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4년에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관계의 새로운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8월 카자흐스탄의 수도 (구) 아스타나에서 일본·중앙아시아 1차 회합이 개최되었다.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Central Asia plus Japan)' 이니셔티브 및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으로 집약될 수 있다. 다양성의 존중, 경쟁과 협조, 열린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실무적으로는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1) 정치대화 (2) 역내 협력 (3) 비즈니스 진흥 (4) 지적 대화 (5) 문화 및 인적 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관계의 성격은 공여자 수혜자 관계에서 양자 동반자 관계로 변화되었다. 오늘날 특별조정 센터는 일본의 실크로드 외교 전략의 틀을 사용하여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도쿄의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중앙아시

[25] 현승수 (2014)

아 국가들 중에서 키르기즈스탄은 이 지역의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대표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은 중앙아시아에서 수천만 달러를 지원해왔으나 다방면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아시아 주요 수원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 일본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 ODA의 장점인 '현장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JICA의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서 JDS (일본인적자원개발장학금)이라고 하며,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의 전문성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부터 일본정부에 의해 시행된 프로젝트이다. 현재 15개국에 제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이다. 정부의 공무원을 훈련을 시키는데 각 나라 매년 15-20명이 일본 대학으로 파견돼 다양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다.

<표 2-3> 2000-2016년 나라별 JDS 현황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① Uzbekistan	20	19	19	20	20	20	20	20	19	14	15	15	15	14	15	15	15	295
② Laos	20	20	20	20	20	20	25	25	25	20	20	20	19	20	20	20	20	354
③ Cambodia		20	20	20	20	20	25	25	25	25	24	24	24	24	24	24	24	368
④ Vietnam		20	30	30	30	30	33	34	35	35	28	29	30	30	30	30	30	484
⑤ Mongolia			20	20	20	19	20	20	20	18	18	16	17	18	18	18	18	280
⑥ Bangladesh			29	19	20	20	20	20	20	20	15	15	15	15	15	25	30	298
⑦ Myanmar			14	19	20	20	30	30	30	30	22	22	22	22	44	44	44	413
⑧ China				42	43	41	43	47	47	48	45	39	35	-	-	-	-	430
⑨ Philippines				19	20	20	25	25	25	25	20	20	20	20	20	20	20	299
⑩ Indonesia				30	30	30	30	-	-	-	-	-	-	-	-	-	-	120
⑪ Kyrgyz Republic								20	20	18	14	14	15	15	15	15	15	161
⑫ Tajikistan										3	5	5	5	5	5	5	5	38
⑬ Sri Lanka											15	15	15	15	15	15	15	105
⑭ Ghana													5	5	5	10	10	35
⑮ Nepal																	20	20
Total	40	79	152	239	243	240	271	266	266	256	241	234	237	203	226	241	266	3,700

출처: "The project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holarship" (JDS: Japan Development Scholarship). ODA Grants: jica.go.jp

<표 2-3>에서 16년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인 우즈베키스탄 295명, 키르기즈스탄 161명, 타지키스탄 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각나라 공

무원, 전문가 등 15-20명이 파견되고 석·박사 학위를 받으며 본국으로 들어와 발전을 시키기 위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실행하는 목적이다.

제 3 장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협력 전략 및 정책 현황 특징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 자원외교 및 경제협력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KOICA와 JICA는 한국과 일본의 재건 복구 및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체제 전환국은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간적인 자원 개발과 경제개혁, 개방정책 발전을 지원하여 활발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26]

제 1 절 KOICA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현황

KOICA는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여 국제협력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27]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해외봉사단 파견, 초청연수, 민간협력, 해외기급구호, 국제기구협력 등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 설립 이래 현재 4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28] 한국은 국외정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반세기만 해도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되었으며 세계에서 높은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무역 규모 세계 8위이며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수십억을 지원할 만큼 잘 발전된 국가라고 평가를 받고 한다. 한국은 그 동안 받

[26] www.oda.go.kr 중동·중앙아시아지역 원조 (검색일: 2019.03.19)
[27]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28] http://www.koica.go.kr/koica_kr/index.do KOICA 주요사업

은 원조를 통해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많은 국가들은 한국 성공 모범사례를 토대로 자기 국가 개발 전략으로 모방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OICA는 지난 28년 동안 한국의 총 양자 ODA 예산의 46.93%와 양자 보조금의 78.93%를 관리하여 KOICA를 원조 ODA 시행 기관의 한국 최고의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8년 동안 KOICA는 5개 지역과 171개국에서 ODA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신생 독립 중앙아시아 5개국은 사회, 경제, 문화 등 영역에서 단독 발전을 해왔지만 더 나아간 발달을 위해 한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다방면적 분야에서는 활발한 협조는 20년간 중앙아시아와 한국 간에 양적 측면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KOICA의 ODA 사업은 경제 및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 개발에 집중된다. 따라서 ODA 사업의 효과는 경제와 사회 인프라 수준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29]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에 대한 KOICA의 ODA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의 직업훈련원은 KOICA가 설립한 우즈베키스탄 유일의 직업 훈련원이다. 교육비가 무료인데다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인적자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한국식 농촌 근대화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ODA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원조를 제공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이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새마을 시범마을들이 확산되고 있다. KOICA는 중앙아시아CIS지역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원조를 하며 국가협력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KOICA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은 5개의 중점분야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기술환경에너지 및 3개의 범분야 성평등,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혁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기술환경에너지 분야는 또 3개 세부분야 물, 교통, 에너지로 세분화하며 총 10개 분야의 중기전략

[29] 김태황 (2016) p. 87

을 수립하였다.[30] KOICA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지역의 지리적 특성,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행함으로 해당 지역에 알맞은 접근으로 정책을 이루어진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갖는 지역이고 중점적인 협력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유라시아 국제협력정책 추진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관계 증진과 가속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성장은 속도가 빠른 편이며 개발도상국보다 평균차가 큰 편이다. 혹은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으로 교육수준과 노동력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천연자원으로 풍부해서 자원 수출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미약한 면이 있으며 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상태가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KOICA는 동구 및 CIS 지역을 한 부문으로 구별하여서 프로젝트,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봉사단파견, 민관협력, 물자자원을 수행하고 있다. 표에 따르면 그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대상으로 지원을 가장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30] KOICA보도자료 “KOICA’s Mid-term Sectoral Strategy 2016-2020”

<표 3-4> 중앙아시아 지역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건)

국가명	프로젝트	개발조사	연구생 초청	봉사단 파견	민관 협력 지원	물자 지원	총합계
우즈벡	7,670/10 (2)		844/19 (82)	4,347/184 (105)	225/2 (2)		13,086
카자흐		283/1 (1)	380/8 (49)				663
키르기즈	551/2 (1)		310/12 (21)	549/162 (161)		229/1 (1)	1,638
투르크멘			32/2(3)				32
타지크			118/6(7)	82/4 (4)		195/1 (1)	396

출처: 2014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1.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정부의 공적 개발원조 (ODA)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995년6월 처음 설립된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상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3-5> 우즈베키스탄 ODA 전략

2015년 지원 계획: 57.8억원	
1.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높은 교육 수준의 노동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업 교육훈련이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숙련 노동력 부재가 심각 → 산업부문별 생산성 제고 및 교육정보화를 통한 미래 산업 기반 구축
2.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전염성 질환 사망 증가 및 기생충 질환 만연으로 사회경제 개발 저해 → 전염병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MDGs 달성에 기여
3. 행정 정보화를 통한 시장경제체제 기반 강화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및 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의 질적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가 시급 → 행정 시스템 정보화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투명성 제고

출처: KOICA 홈페이지 (국제 ODA 원조조달시장 진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KOICA 사무소 사업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어 수행된다. 첫째, “개발 프로젝트 사업 (Project and DEEP)”인데 사무소 설립 이후 KOICA 사무소는 28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2020)를 토대로 한 중점협력분야인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연수 사업 (Fellowship Program: CIAT)”은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는 누적 약 2,100여명의 연수생을 선발하여 한국으로 파견하였다. 연수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 연구, 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연수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통한 경제사회발전을 기여하고 있다. 셋째,“해외 봉사단 사업 (World Friends Korea)”은 1995년 10명의 봉사단원을 시작으로, 2018년8월까지 한국어 교육, 컴퓨

터 교육, 태권도, 보건, 농업 분야 등에서 총491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였다. 봉사단원들은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파견되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는 지역 및 분야별 봉사단원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단원 협력활동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실시 기관에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등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그 외에도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는 다양한 전문인력 파견 사업, 국제기구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년 넘게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는 다방면적인 활동을 해왔다.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는 성평등, 환경, 인권 등 많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가 우즈베키스탄에 실시한 정보 통신 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관련 프로젝트는 '교육정보화 사업', '국가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 등으로 대체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행정 부문의 사업의 많았으며, KOICA의 초청연수사업 역시 전자정부나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31]

<표 3-16>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공행정 분야 세 분야에 집중적으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 및 공공행정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공공인력 역량 강화)을 중점 협력분야로 총 지원 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KOICA는 1992-2008년까지 2천7백만 달러의 무상 원조 사업을 펼쳐왔으며, 2008년까지 KOICA 연구프로그램에 참가한 우즈베키스탄의 공무원·대학교수·연구원 등은 904명에 이른다.[32] KOICA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와 IT 분야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 2003년 이를 신규 사업으로 확정하고, 국제 IT 수준에 걸맞은 훈련 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2003-2004년까지 70만 달러를 들여 컴퓨터, 노트북 등 장비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장기간 현지에 파견해 IT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IT 전문가 훈련 센터 완공 후 타

[31] 심수민, 유성훈, (2017). p. 18
[32] 김진오 외 28명 (2009). p. 547

슈켄트 시청의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 곳에서 교육을 받는다. 본 IT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덕분에 타슈켄트 시청과 도청 공무원들 중 90% 이상이 교육을 우수한 후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교육의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의미 있는 사업은 '최초의 전자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세계경제외교대학에서 체계적인 도서 관리 시스템이 있는 도서관을 설립하였다. KOICA의 지원으로 대학의 장서 규모는 이전의 2배인 35만권으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이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세르겔리 지역에서는 KOICA 사업 중에 '직업 훈련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은 인적 자원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이다. 2017년 11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 KOICA-국가투자위원회 간 '2018-2019 무상 ODA 사업 MOU'를 체결하였다.

프러젝트 사업:

- 전염성 질병관리 역량강화사업 (2013-2019 / 600만 달러)
- 사흐리샵스 훈련센터 설립사업 (2014-2019 / 850만 달러)
- 표준청 국제동동성 확보 지원 및 시스템 구축사업 (2014-2019 / 700만 달러)
- ICT 기반 통합 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6-2020 / 700만 달러)
- 아동병원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2015-2020 / 700만 달러)
- 공공부문 인적지원 역량개발사업 (2017-2019 / 300만 달러)
-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교 통합교육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보급지원사업 (2018-2021 / 300만 달러)
- 페르가나 직업훈련원 건립 (2018-2022 / 890만 달러)

현재까지 KOICA는 대우즈베키스탄에 ODA 지원 실적 (1991-2017) 총

1억2,475만 달러 지원해왔다.[33]

<표 3-6>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 2016-2020

구분		재원 배분 비중	
분야	내용	무상	유상
중점 협력 분야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교육 분야)	30%	25%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회 보장 강화 (보건의료 분야)	25%	40%
	공공부문 제도 개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공공행정 분야)	15%	5%
기타		30%	30%
계		100%	100%

자료: KOICA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KOICA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7개로 구분하였다. 이는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 보건 증진,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이다.

<표 3-7> KOICA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사업명	사업형태	사업분야
우즈벡 사흐리사브즈시 훈련센터 설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 ('14-'19/850만불)	프로젝트	교육

[33] KOICA 2017 보고서

우즈벡 전렴성 질병 관리역량강화사업 ('13-'19/600만불)	프로젝트	보건의료
우즈벡 표준청 국제동등성 확보 지원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4-'19/700만불)	프로젝트	공공행정
우즈벡 ICT 기반의 수자원정보화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강화 시범사업 ('16-'20/700만불)	프로젝트	기술환경에너지
우즈벡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국가행정 아카데미 역량강화사업 ('17-'20/300만불)	개발컨설팅	공공행정
우즈벡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교 통합교육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보급 지원 사업 ('18-'21/300만불)	프로젝트	교육
우즈벡 체르가나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18-'22/890만불)	프로젝트	교육
우즈벡 아동병원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15-'23/700만불)	개발컨설팅	보건의료

출처: http://www.oda.go.kr KOICA 사업정보

한국정부는 대우즈베키스탄 유상원조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관 공여 한도액을 설정하여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1월 '2018-2020년 EDCF 기본약정' (5억 달러)을 체결, 신규 사업 협의 중이었다. 총10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고 현재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표 3-8> 대우즈베키스탄 EDCF 승인 사업 내역

구분	사업명	승인일	승인액 (단위: 백만달러)	사업내용	비고
1차	통신망 현대화	1996.10	15	전자교환기 설치	사업종료
2차	직업교육시설 개선	1999.12	35	교육 기자재 공급	사업종료
3차	직업교육 개발	2003.12	27	직업교육 기자재 공급	사업종료
4차	교육 정보화	2006.03	30	멀티미디어 기기 공급	사업종료
5차	의료기기 공급	2009.04	10	심장센터 의료기기 공급	사업종료
6차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011.11	15	NGIS 기자재 공급	본사업 단계
7차	아동병원 건립	2013.12	103	병원 신축 (275병상) 및 의료 기자재 공급	본사업 단계
8차	전자도서관 구축	2014.06	14	국립도서관 디지털화	본사업 단계
9차	교육정보화 2차	2015.05	33	교육기자재 공급	초기 단계
10차	데이터센터 건립	2016.12	27	통합데이터센터 건설	초기 단계
합계	10건		309		

출처: 우즈베키스탄 개황 2019

우즈베키스탄은 EDCF 협력룩 중에서 지원 규모 9위 수준으로 삼는다. 한국정부는 2007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주로 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유·무상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인도적 발전을 집중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2.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에 문화·경제·사회·관광적 측면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에 수 십 개 다양한 협력 협약을 맺었고 또는 카자흐스탄-한국 특별한 관계는 인류적인 공통점으로 더더욱 강해졌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디아스포라도 카자흐-한국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KOICA 는 카자흐스탄에서 의료분야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의료관광이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데 매년 카자흐스탄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그래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의료 분야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2009년 128명에 불과하던 방한 의료관광은 2016년 15,010명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한다.[34] 한국에서 의료관광으로 온 카자흐스탄 환자가 늘어나며, 한국으로 파견된 카자흐스탄 의사 전문가들이 연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카자흐스탄으로 파견된 한국 의사 전문가들이 자기 기술노하우를 공유하고 작은 병원까지도 생기기도 한다.[35]

카자흐스탄은 보건의료분야에 문제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 건강 수준의 저하와 낮은 기대수명, 성별차이, 높은 영아와 모성 사망률, 의료서비스 무상제공 제도의 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건의

[34]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8018&searchNationCd=101092(검색일: 2019.09.29)

[35] https://kazakh-tv.kz/ru/view/society/page_199863_kazakhstan-i-koreya-razvivayut-sotrudnichestvo-v-oblasti- (검색일: 2019.09.28)

료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카자흐스탄 지역은 넓은데 비해 인구밀도고 매우 낮고 도로시설이 열악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취약한 곳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KOICA는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분야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동카자하스탄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중앙아시아CIS팀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인 "살라마티 (Salamaty) 카자흐스탄 2011-2015"에 의거해서 동카자흐스탄은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 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에 대한 수요와 정책적 추진 의지가 매우 높아 응급의료 체계 강화(System Strengthening)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동카자흐스탄주와 자매 결연을 맺은 강원도는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진행해왔으며, 다방면적인 협력을 이루어졌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 응급의료 서비스를 양적 및 질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는 구급차 등 기본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원격 진료 등 신기술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제고를 추진하려는 동카자흐스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36] 이 사업은 100%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의 정부 ODA 추진 방향인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과 부합하는 사업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관련 인력을 훈련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병원 전단계, 이송단계, 병원단계의 지침 (메뉴얼)과 체계 관리방안을 개발하여, IT와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타주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식과 정부를 전파하고 공유하도록 실시하였다.

카자흐스탄 남부쪽에 위치하고 있는 쉼켄트 (Shymkent) 특별시는 2018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쉽켄트 시티'란 10년간 건설 프로젝트에 지원할거라고 보도하였다.[37]

---

[36] KOICA 발간물 중앙아아시아 CIS팀 (2013) 카자흐스탄 동카자하스탄주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37] https://24.kz/ru/news/economyc/item/279598-yuzhnaya-koreya-investiruet-v-shymkent-siti-130-mlrd-tenge "Yuzhnaya Koreya investiruet v 'Shymkent city' 130 mlrd tenge" (검색일: 2019.03.27)

카자흐스탄에서 KOICA 사무소가 2011년까지 있었다. 2007년 수립된 'ODA 중기전략 2008-2010'에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전략적인 대외원조 제공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2008년 1월 제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ODA 중기 국별원조전략 수립안 2008-2010'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유·무상 통합 중기 국별 원조전략 수립국가 18개국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2009년 10월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점협력국 단일화 및 통합 국별지원전략 수립' 안건에서 카자흐스탄이 중점지원국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2008년 카자흐스탄이 하위 중소득국 (LMICs)에서 상위 중소득국 (UMICs)으로 올라서면서 개발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1년 카자흐스탄 KOICA 사무소가 철수하게 되었다.[38]

3.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은 한국과 1992년 1월 31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문화협정 (1997), 관광협정 (2006), 경제협정 (2008), 투자보장협정 (2008) 등 주요 협정을 체결하였다.[39] 현재 키르기즈스탄에서는 국제협력기구 21개 기관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였고, 개방형 무역·투자 제도를 마련하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다고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의 유상·무상 원조실적을 살펴보자면 무상원조 지원액은 532만 달러, 유상원조 지원액은

[38]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p. 92
[39] 한국수출입은행, 2014

1,200만 달러이다. [40] 그리고 KOICA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매년 대키르기즈스탄에 한국의 지원액이 증가추세를 볼 수 있다. KOICA는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주요 프로젝트는 공공행정 개선, 교육, 농업 정책에 반영된다. 또는 매년 연수자 초청, 해외봉사단 파견, 물자지원, 긴급구호, 태권도사범 파견,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OICA는 2015년에 중앙아시아 북부 키르기즈스탄에 주재원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13년까지 키르기즈스탄은 한국의 제4위 수원국이었다가 2015년에 KOICA 사무소가 개설을 전후로 제2위 수원국으로 전환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함께 2015년부터 키르기즈스탄의 농업 개발을 지원하고자 농업 교육, 우수 종자 보급, 농기계 대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41] 또한 2016년 9월부터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키르기즈스탄 전자주민키드 (e-National ID) 도입'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조폐공사는 이러한 사업을 발판 삼아 키르기즈스탄 국가등록청 (SRS: State Registration Service)과 30억 원 상당의 전자주민키드 추가 공급 계약을 맺는 성과를 이뤘다. [42]

<표 3-9> KOICA의 키르기즈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사업명	사업형태	사업분야
키르기즈공화국 UNDP 소방구조 역량강화사업 ('19-'22/700만불)	프로젝트	공공행정
키르기즈공화국 유기농업정책 이행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19-'23/500만불)	프로젝트	농림수산

[40] 한국국제협력단 ODA 통계시스템 2018

[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076003&sid1=001&lfrom=facebook&fbclid=IwAR0eKU52gP7ntMCjtWTLn-[41]VB3wNdjQSSmS6BLOW-zFWyvVzP294y6gAeJlM "키르기스 당국자 등9명, 한국서 농촌기술 견학" (검색일: 2019.03.27)

[42] www.gov.kr 코이카, 키르기스스탄 무상원조사업 통해 30억원 수출효과 달성 (검색일: 2019.03.28)

키르기즈공화국 새마을기반 지역개발 시범사업 ('17-'21/350만불)	프로젝트	농림수산

출처: http://www.oda.go.kr KOICA 사업정보

<표 3-9> 나오듯이 키르키스탄의 KOICA 주요 최근 정책은 농업 정책이다. 키르기즈스탄은 전통적인 농업국가이며 농업이 GDP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농업이 GDP에서 21.2%를 차지하였다)[43]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농업이 중점적인 사업부문이지만 키르기즈 정부의 투자가 미미한 상태이며 기본적 시설 부족, 열악한 농업 기계와 장비 상태로 인해 농업 부문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키르기즈스탄 농업부문 개발 전략은 국가개발전략인 (1) "중장기 개발전략 – 2012~2014 빈곤감소 전략 문서 (Medium-Term Development Program – Pr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for 2012~2014)", (2) "2009~2019 농업 및 식량안보 전략 (Th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Strategy – Concept of Food Security for 2009~2019)", (3) 산업발전목표 (The Industry Development for 2012~2015)" 등이 주요 목표는 농업 부문의 구조 개혁을 통한 시장기반시설과 유통 및 정보시스템 개발 등 기반기걸 확충이다. [44]

인프라, 농업, 경제 등 분야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한다. 2016년에 KOICA의 ODA사업인 '키르기즈공화국 선거역량강화사업 ('14-'16/615만불)의 성공적인 지원에 따른 결과로서, 전자선거시스템 및 선거관리역량강화 전파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 기여' 분야의 공적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4. 타자키스탄

한국 측에서 ODA 협력대상국인 타지키스탄과 에너지 및 공공행정 분야

[43] 이윤정 (2015a). p. 6
[44] 이윤정 (2015b)

를 중심으로 그간 진행되어 온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건의료 MOU 등 양국간 실질협력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45]

<표 3-10> KOICA의 타지키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사업명	사업형태	사업분야
타지키스탄 전력소외 지역 전력망 구축 및 보건환경 개선사업 ('17-'20/600만불)	프로젝트	기술환경에너지

5.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후 1992년 2월 7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2006년까지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협력 수준이 미미하였으나 2007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을 개설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KOICA를 중심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 투르크메니스탄에의 지원은 1991-2006년간 총 142.8천 달러로 미진한 수준이었으며 2007년 주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개설 이후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KOICA 한-투르크메니스탄 가스직업훈련원 건립사업 협의의사록을 체결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가스 및 석유가 전체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중장기 목표에서 주요 전략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KOICA가 가스 자원분야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추진한 첫 번째 사업이다. 2019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를 방문할 때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은 '에너지-인프라 협력 등 실질적 증진', '양 국민간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

[45] 정세진 (2016)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산업 현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육성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KOICA의 '가스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과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 MOU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46]

<표 3-11> KOICA의 투르크메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사업명	사업형태	사업분야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직업훈련원 역량강화가업 ('14-'20/590만불)	프로젝트	교육

소결

2016년에는 KOICA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방향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한국의 2011-15년 계획이 2016-2020년 대중앙아시아 개합협력 계획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2012년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이 마련됨과 동시에, 교육, 보건·위생, 공공행정 개선 등 중점협력분야에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2016년 제2차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이 마련되었으며,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등이 중점협력 분야로 지정되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2월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마련된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2016-20'의 주요 대상국으로 포함되었다.[47]

---

[46]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0113 검색일: 2019.09.29

[47]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p. 95

<표 3-12> 한국의 중앙아시아 공여 현황 (2011-15년)[48]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계	비중1
우즈벡(CPS)	전체	25.31	22.42	13.35	16.44	18.23	95.74	78.99
	무상	9.27	12.84	11.34	14.35	15.98	63.77	
카자흐	전체	2.91	1.18	0.60	0.92	1.18	6.79	5.60
	무상	2.91	1.18	0.60	0.92	1.18	6.79	
키르기즈	전체	1.24	1.04	1.34	2.26	7.98	13.84	11.42
	무상	1.24	1.04	1.34	2.26	7.98	13.84	
타지크	전체	0.76	0.48	0.68	0.61	0.83	3.35	2.76
	무상	0.76	0.48	0.68	0.61	0.83	3.35	
투르크멘	전체	0.71	0.34	0.11	0.03	0.30	1.49	1.23
	무상	0.71	0.34	0.11	0.03	0.30	1.49	
합계	전체	30.92	25.45	16.07	20.27	28.51	121.21	1.82*
	무상	14.88	15.87	14.06	18.17	26.26	89.24	
수원국 전체	전체	1,060.73	1,271.72	1,368.01	1,405.15	1,548.90	6,654.51	-
	무상	589.74	737.81	804.88	840.71	906.42	3,879.55	

주: 집행액 (gross disbursement) 기준, 전체에서 무사원조를 차감한 규모가 유상원조; 비중 1은 2011-15년 대중앙아시아 전체 공여액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1.82는 2011-15년 대세계 (수원국 전체) 공여액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48] 위 책 p. 96

위에 <표 3-12>에서 살펴보듯이 무상원조 현황은 KOICA의원조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2016년 ODA 예산 기준이 나오고 전체 양자 무사원조의 약 60% 집행한다.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상원조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그러나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면 원조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는 1992년 약 19만 달러에서 2015년 약 1,984만 달러로 100배 정도 이상 증가되었다.

KOICA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을 평가하면서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앙아시아에 다른 중점협력 지역보다 투입한 ODA의 성과는 상당히 미진한 편에 속한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개발협력은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있으며, 2014년 키르기즈스탄에 KOICA 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다변화된 실정이다. 또는 KOICA는 중앙아시아와의 개발협력에 개선해야 할 핵심 시사점은 원조의 다각화, 개발 수요 맞춤형 지원 모색,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제의한다. 이를 위해 향후 중앙아시아와 바람직한 개발협력의 정책과 원조방향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는 중앙아시아 각 5개 공화국에 대한 정책 차별화, 국가별 접근, 경제 잠재력, 사회 동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JICA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현황

일본 ODA 역사는 1954년에서 출발하며 ODA 전략, 정책·계획, 집행 단계의 주관 기관과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ODA 주관 및 유관 부처간 정책 조율 및 조정을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JICA는 원조 실행기관으로서 기술협력을 담당해왔으나, 2008년 원조 일원화 체제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기술협력은 물론 외무성 (MOFA)이 관장하던 무상원조와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의 유상원조 업무를 총괄하

는 일본 최대 원조기관인 신 JICA로 재탄생하였다.[49] JICA의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국의 본부장 Tetsuya Yamada는 '새로운 인프라와 연결성 (new infrastructure and connectivity)'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이 새로운 도로와 항구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공여국 및 민간기업과 함께 공조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결성이 핵심"이다. JICA는 중앙아시아 5개국, 코카서스 3개국에 1990년대 초부터 개발협력을 시작하였다. 야마다 총리는 종종 개발기관들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8명의 고아'라고 불렸다. 일본은 중앙아시아에 제공 ODA 총액으로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JICA는 협력과 민주주의와 경제시장의 진흥에 집중하여 강조하고 있다. JICA는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전력과 교통 기반 시설 개선 프로그램,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 강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JICA는 연간보고서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별 원조 방향을 밝혔고 아래 표는 '2016년 연간보고서'에 제시된 중앙아시아 ODA의 주요 내용이다.

<표 3-13> JICA의 중앙아시아 ODA 정책 방향 (2016년 기준)[50]

국가	주요 내용
우즈베키스탄	• 수원국 개요: 풍부한 천연자원 (가스, 금)과 면화 수출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해왔으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다각화와 기술이전 긴요 • 중점 목표: 경제성장과 불균형 발전 해소 지원 • 중점 분야: 경제 인프라 (전력, 교통) 개선, 인적자원 개발, 일본 센터 활용한 비즈니스 인력 양성, 농업 및 보건 인프라 개선
카자흐스탄	• 수원국 개요: 자원 부국으로 최근 자원기반 경제

[49] 손혁상 외 (2012)
[50]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p. 88

	구조를 탈피하여 산업화 실현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구 • 중점 목표: 균형잡힌 경제·사회 발전 지원 • 중점 분야: 지식기술전수, 에너지보존, 중소기업 육성/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공여국 전환 지원
키르기즈스탄	• 수원국 개요: 독립 이후 신속한 시장경제 전환을 추진했으나, 금을 제외한 천연자원 부족에 따른 경제성장 지체 • 중점 목표: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경제 발전과 민주화 지원 • 중점 분야: 교통 인프라 구축, 농업 및 비즈니스 활성화 * 일촌일품 (One Village One Product) 프로젝트 추진, 농업 활성화 지원, 일본센터를 통한 비즈니스 인력 육성 등
타지키스탄	• 수원국 개요: 현재 경제·사회 안정과 구조개혁,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중점 목표: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통한 국가건설 (nation-building) 기여 • 중점 분야: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교통 및 소규모 전략발전 인프라 구축
투르크메니스탄	• 수원국 개요: 천연가스 부국이자 중립국으로 주변국과 우호관계 구축 • 중점 목표: 경제·사회 발전 지원 • 중점 분야: 교통, 보건 서비스, 농업 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력 훈련

일본의 개발원조는 크게 국별 (Country Program)과 테마별 (Thematic

Program)로 나뉘는데, 국별 프로그램은 현재 JICA 원조의 중심축인 국별 지원 프로그램 (Country Assistance Program: CAP)을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다. [51]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JICA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 정부의 협력 하에 민간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투자진출은 ODA와 민간기업 투자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ODA에 의한 중앙아시아 진출은 러시아, 미국, 중국의 견제에 따른 경쟁을 피하고, 국가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민간기업의 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에너지안보, 국가 이미 제고, 무역증대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52]

<표 3-14> 일본의 중앙아 ODA의 핵심사업과 국가별 지원내용[53]

핵심 사업	국가별 지원 내용
시장경제로의 이행 지원	1. 중앙아시아 인재초청 프로그램 실시 2. 시장경제 운영, 법제도 정비,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600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파견, 일본센터 운영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철도, 도로, 공항, 전력, 수자원 등 인프라부문의 재건에 집중적으로 지원 -카자흐스탄 철도 여객수송력 증강계획 (1995), 눌술탄 공항 보수계획 (1998) -우즈베키스탄 Tash-Kumkurgan 철도 신설계획 (2004), 타슈켄트 화력발전소 근대화 계획 (2002) -키르기즈스탄 비쉬케크-오쉬 도로보수 계획 (1996,1998), 마나스 공항 (2003)

[51] 이현주 (2010). p. 19
[52] 박상남, 강명구 (2007). p. 48
[53] 위 책 p. 49

사회 각 분야 개선 지원	1. 의료 및 교육 시스템 복원 -카자흐스탄 눌술탄 시 구급의료센터 정비계획 (2001), 세미팔라틴스크 지역 의료개선 계획 (2000) -우즈베키스탄 구급과학센터 기재 정비계획 (2001) 2. 민잔안전보장 무상자금 협력을 통한 교육분야 지원 -우즈베키스탄 직업고등학교 확충계획 (2000년) -키르기즈스탄 나린 주 코츄콜 지구 중등학교 보수계획 (2004)
환경보전	아랄 해 염해대책 등

JICA는 개발현장은 누구에게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질적 성장 (Quality Growth), 평화구축, 글로벌 이슈에의 개입, 전략적 파트너쉽의 확산,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ODA 사업의 수행주체 JICA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핵심적 지원전략을 설정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전 세계 90여 개국에 구현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JICA는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을 연합을 시켜서 협력전략을 이루어지고 있다. JICA는 이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 내 협력 증진을 핵심 지원전략으로 설정하고, 전기발전, 교통 인프라 구축, 민간영역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제 증진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54] 중앙아시아는 일본에 있어 지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과의 자원외교는 자원 및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가장 중요시하는 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혹은 중앙아시아는 테러, 마약, 난민 문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밀접하고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한 중심지라고 한다. 또한 중앙아시아 각국은

[54] Global social policy brief,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좋은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55] 일본과 중앙아시아국가 간에 독특한 성호관계를 갖고 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교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긴급 자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56]

<표 3-15> 중앙아시아에 JICA 프로그램 (재정 2017)

(단위: 백만 엔)	JICA 프로그램의 총액	구성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10,534	39.4%
타지키스탄	3,199	12.0%
키르기즈스탄	2,901	10.9%
투르크메니스탄	183	0.7%
카자하스탄	111	0.4%

출처: (JICA) Activity report, East Asia and Central Asia (2017)

중앙아 이상(5개국) 와 코카서스 (3개국) 총 원조는 2천6백만 엔으로 나타났다.

[55] [전문가 칼럼] 이진혜 (2013)
[56] 이지은 (2013). p. 61-91

<표 3-16> 중앙아시아 일본의 수출입 현황

(단위: 엔)

국가	통상			Japanese companies in the country
	Export to Japan	Import from Japan	Balance	
	2013 (in million yen)			
우즈베키스탄	12,252.78	12,931.94	-679.16	-
카자흐스탄	66,627.27	83,969.40	-17,342.14	8
키르기즈스탄	116.37	11,348.08	-11,231.71	-
타지키스탄	101.32	193.25	-91.93	-
투르크메니스탄	7.37	4,703.36	-4,696.00	-

출처: JICA 홈페이지 참조

러시아, 미국,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에너지 개발과 확보를 목적으로 이들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소위 '신 거대게임 (New Great Game)'을 펼치고 있다.[57] 이에 일본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이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한 완충지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였다. 최근에 일본은 대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제공하는 ODA 총액이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한다. [58]

일본은 민주화가 중앙아시아 근대화 과정의 중요한 측면임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민주주의 기록을 개선하기를 원하다. 동시에 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정치 발전 과정의 토대로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민주적 가치는 외부에서 부과되거나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략은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이 민주적 관행에 개방되도록 하기보다는 주동하는 것이

[57] 윤석상 (2017). p. 122
[58] 현승수 (2014)

중요하다. 일본은 이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공화국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앙아시아 수도에 도쿄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은 일본의 현재 중앙아시아에 대한 주요 근거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원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의 소비에트 통치는 러시아의 이미지와 혼합되어 일본의 눈에 더 먼 지역을 만들었다. 일본이 소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는 소련의 단순한'후진적'부분으로 간주되어 더욱 소홀히 여겨졌다. 1991년 소련이 붕괴 직후 James Baker 미국 국무 장관은 새로 독립한 CIS 국가들을 공략하며 지원을 약속하고 미국 대사관의 개장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중앙아시아 첫 대사관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1993년 1월에 개설하였다. 처음에 일본의 대사관이 생긴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충분한 인원이나 예산이 제공되지 않았다. 90년대 초반에 중앙아시아 국가 중 키르키즈스탄은 일본 정부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당시 아카예브 (Askar Akayev) 키르키즈스탄의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일본 관리들에 의해 CIS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장 개혁 지향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59] 키르키즈스탄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본의 원조가 더욱 효과적이어서 키르키즈스탄은 일본의 ODA의 쇼케이스로 전환되어 CIS 국가와 러시아 사이에서 일본의 지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2년 일본 외무 장관이 방문한 최초의 중앙아시아 국가였다. [60]

---

[59]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 따르면 167개국 중 키르기즈스탄 95위, 카자흐스탄 141위, 우즈베키스탄 158위, 타지키스탄 159위, 투르크메니스탄 161위 순으로 나타났다. http://overseas.mofa.go.kr/kg-ko/brd/m_9145/view.do?seq=1346587 (검색일: 2019.09.30)

[60] Kawato Akio (2008). p. 16

1. 우즈베키스탄

2002년 7월 하시모토 총리는 우즈베키스탄-일본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우즈베케스탄이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한 주요 경제 재원·투자 유치국으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문화 교류에 주력하자는 것이었다. 또는 일본 민주화·시장경제 이행 지원과 러시아와 중국 견제 등을 통한 역내 영향력 강화, 중앙아시아·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강화시킬거라고 선언하였다. 2006년 8월에 고이즈미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카리모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통상 증진, 에너지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간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2016년 10월 아베 총리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일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자동차 생산, 석유가스화학, 교통 현대화,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일본 간 무역투자 관계는 크게 활발하지 않으나, JICA를 통한 대우즈베키스탄 원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및 기술이전, 전문가 교류 등의 방식으로 에너지·전기·전자·IT·방송·농업 등 다방면적인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대우즈베키스탄 유·무상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렇지만 키르기즈 정부는 경제 규모가 작아서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점차 일본 정부의 우선 순위가 인구가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되었다. 대량 석유 매장량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중요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차지한다. 이 두 국가에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유라시아 동부 절반의 권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 국가로 쉽게 확산 될 것이다. 1995년 일본은 통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

즈베키스탄에 첨으로 큰 엔화 대출을 주었다. 그 이후로 양국에 부여된 ODA 규모의 동등 (parity)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비에트 이후 공간에서 있던 산업 및 사회 인프라가 붕괴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은 ODA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또는 행정 관리 시스템을 개선, 인적 개발하기 위해 매년 JDS 프로그램을 통해 우즈벡 공무원 훈련 및 교육 파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표 3-17> JICA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단위: 백만엔)

사업명	사업형태	사업분야
카르쉬-테르메즈 철도의 개선 ('17-'21/180.67)	유상	경제 인프라
경제·사회 프로젝트 ('18-'20/8.00백만엔)	무상	경제 인프라
투라쿠르간 화력발전소 ('17-'21/718.39)	유상	경제 인프라
행정 시스템, 기관 행정시스템 개선 ('17-'21/13,36); JDS 프로그램	무상	인적 개발
타쉬켄트 국립 IT 대학교 교육 메디아 센터설립 ('17-'18/1.88)	무상	인적 개발

출처: Japan's ODA Data for Uzbekistan (mofa.go.jp/policy/oda) 참조

<표 3-18> 일본의 우즈백 주요 부문에 대한 공여현황 (2011-15년)

(단위: 백만달러/2015 고정가 기준, %)

부문	주요 사업	금액	비중
경제인프라	[유상] 나보이 화력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 투라쿠르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카르쉬-테르메즈 철도 전선화 프로젝트 등 [무상]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철도·도로 교통, 금융·에너지·통신 정책 등	239.75 (231.57)	81.36
교육	[무상] 교육정책, 초등 및 고등 교육, 훈련, 교육설비 등	20.16	6.84
생산	[무상] 산업 (농업, 임업, 관광, 축산 등) 및 통상, 농업용수,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	8.06	2.74
보건	[무상] 보건정책, 의료서비스 등	4.78	1.62

출처: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p. 85 참조

2. 카자흐스탄

1992년에 두 국가가 외교관계를 맺은 후 일본과 카자흐스탄 관계는 그다지 원만하지 못 하였다. 나자르바예프 전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지원을 받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카자흐스탄 관료들의 오만한 태도가 일본 정부에 불쾌감을 심어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양국 정상의 활발한 방문에 힘입어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 나라 간 협력에서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핵 개발과 관련한 것이다.

<표 3-19> 일본의 카자흐스탄에서의 ODA 현황

(단위: 백만엔)

년도	유상	무상	기술 협력
2012	-	0.39	2.77 (1.62)
2013	-	0.47	2.46 (1.38)
2014	-	0.51	2.77 (1.97)
2015	-	0.34	2.01 (1.57)
2016	-	0.32	1.55
총계	951.49	63.00	143.80 (133.38)

출처: Japan's ODA Data for Kazakhstan (mofa.go.jp/policy/oda) 참조

<표 3-20> 일본의 카자흐 주요 부문에 대한 공여현황 (2011-15년)

(단위: 백만달러/2015 고정가 기준, %)

부문	주요 사업	금액	비중
경제인프라	[유상] CAREC 교통허ㅣ랑 (잠빌 주) 개선 프로젝트; [무상]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도로교통, 금융에너지 (전력, 재생에너지) 정책 등	52.89 (51.53)	75.81
물공급·위생시설	[유상] 아스타나 물공급 및 하수처리 프로젝트 [무상] 폐기물 관리 등	4.26 (3.54)	6.12
교육	[무상] 교육정책·행정, 고등교육, 훈련 등	4.60	6.59
생산	[무상] 산업 (광업, 농업, 관광 등) 및 통상, 중소기업 유성 정책 등	3.00	4.30

출처: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p. 85 참조

3. 키르키즈스탄

1990년대 초반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일본과의 우호관계가 가장 긴밀하였다. 일본은 키르기즈스탄 개발 원조에서 세계 1위 국가이며 지원 분야는 수송인프라 강화, 농업 발전, 사회 개발, 열린 시장 환경 하에서 인적자원 개발, 기초생필품의 접근 가능성 확대를 포함한 인간안보 등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 비시케크 마나스국제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비시케크-오시 구간 도로 복구 프로젝트, 은행 시스템 개선, 탈라스 지역 광물자원 탐사 등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프로젝트들이고, JICA를 통한 지원 및 협력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활발하다. 그렇지만 최근 키르기즈스탄에서 일어나는 정변 정세와 정치적 불안정함[61]으로 인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경제에 대한 일본의 투입의 주요 영향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느낄 수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현재 교통, 관광, 기업가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및 교육 부문에서 많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일본의 기본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서 마나스 국제공항 (Manas International Airport) 재건을 위한 4억5,500만 달러의 대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비쉬케크-오쉬 고속도로 포장과 재건설을 진행 중이다. 비쉬케크의 JICA 사무소는 주로 키르기즈재무부와 교통부와 협력한다. 키르기즈스탄 정치 지도자들은 결국 일본이 교육 및 건강 관리 시스템과 같은 영역에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며, 2004년 중앙아시아+일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계획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JICA는 키르기즈스탄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며 다방면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큰 원조를 실천해왔다. 예컨데 농업 분야, 환경/생태 개선, 임업 분야 진흥, 학자 파견 프로그램 등을 실현하고 있다. 두 국가간 우

[61] 2005, 2010, 2017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축출, 정변 정세

호·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 아이들에게 키르키즈스탄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견학을 마련하였다.

일촌일품 (“OVOP: One Village One Product”) – JICA 프로그램 중에서 키르기즈스탄에서 생산되는 펠트 제품의 수출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되었고 “The best exporter of the Kyrgyz Republic” 국립 포상까지 받았다. 2019년4월 JICA의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는 키르기즈스탄의 유제품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주요 프로젝트의 키르기즈스탄에서 생산되는 우유와 유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 경제 공동체 (EEC) 국가들에서 공급 확산한다는 목표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3년 6개월 동안 실현할 예정이다.[62]

<표 3-21> 일본의 키르기즈스탄에서의 ODA 현황

(단위: 백만엔)

년도	유상	무상	기술 협력
2012	-	6.92	8.68 (7.99)
2013	-	5.77	11.25 (10.52)
2014	-	37.04	9.69 (9.03)
2015	119.15	35.00	10.86 (10.46)
2016	-	24.70	8.80
총계	375.80	262.91	176.71 (167.34)

출처: Japan’s ODA Data for Kyrgyzstan (mofa.go.jp/policy/oda) 참조

일본이 키르기즈스탄 정부에 민주주의적 정치와 경제 개혁을 추구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신 소프트 외교는 일본이 국제무대에 참여하는 전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 일본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정치적 압력 없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새로 독립된 국가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계속된다

[62] JICA newsletter #97 (2018년 10월-11월) www.jica.go.jp (검색일: 2019.10.12)

면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민주적 발전을 가져오는 한편 가장 친근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국제 요원 (agent)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과 중앙아시아 국가가 협력할 인센티브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키르기즈스탄 경우는 외무부 대표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평가를 높게 한다. 키르기즈스탄에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원조가 필요하고 키르기즈-일본 관계의 가장 성공적인 세 가지 영역은 인프라, 의료 및 교육 재건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63]

<표 3-22> JICA의 키르기즈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단위: 백만엔)

사업명	사업형태	사업분야
비쉬케크-어쉬 고속도로의 Kok-Art River Bridge 재건 (6.27)	무상	지역 개발
어쉬, 잘랄-아바드 고속도로 포장 (24.91)	무상	지역개발
인적개발 장학금 ('16/2.27)	무상	인적 개발
E-Governance 시스템 개설 (6.49)	무상	인적 개발
OVOP 이스크-쿨 지역 개발	기술 협력	지역 개발

출처: Japan's ODA by Type (mofa.go.jp) 참조

<표 3-23>과 <표 3-24>에서 JICA의 키르기즈스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 비해서 JICA는 키르기즈스탄의 민주주의 부문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경제인프라 부문에 ODA를 가장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63] Erica Marat (2008). p. 91

<표 3-23> 일본의 키르기즈스탄 CAP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원조 배경	➢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경제발전 긴요 -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일본에 우호적임. - 에너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산업화도 더딘 상황: 경제성장 동력 창출 필요 - 교통·에너지·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인프라 낙후 - 타지키스탄과 함께 저발전 지속
원조 방향	➢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구축 지원 - 키르기즈 정부의 정책 방향 도로교통 (물류환경 개선을 통한 교역 촉진) 및 사회부문 발전, 빈곤 및 지역 불균형 해소 - 원조환경과 수원국 정부의 정책 고려하여 도로 인프라, 농촌 발전, 사회 인프라 (교육, 보건 등) 개선 등을 중점적 지원

<표 3-24> 일본의 키르기즈 주요 부문에 대한 공여현황 (2011-15년)

(단위: 백만달러/2015 고정가 기준, %)

부문	주요 사업	금액	비중
경제인프라	[무상]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도로·항공 교통, 금융·통신·교통 정책 등	52.26	47.00
생산	[무상] 산업 (농업, 임업, 관광, 축산 등) 및 통상,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	18.41	16.56
교육	[무상] 교육정책, 초등·고등 교육, 훈련, 교육설비 등	13.73	12.35
정부·시민사회	[무상] 공공부문 정책,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선거, 범제 등	8.23	7.40

출처: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p. 85 참조

4.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내전과 이후의 정국 혼란 등으로 인해 1990년대에 양국 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다. 2006년 8월에는 JICA가 타지키스탄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가 낙후된 타지키스탄에 대해 일본의 ODA 지원은 엔 차관이 아닌 무상원조가 대부분이다. 쿠르간튜베-두스티 구간 도로 복구 프로젝트가 대표적이고, 이를 통해서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타지키스탄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유럽, 러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안정성은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국경을 인접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깅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행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타지키스탄 내전 (1992-1997) 때문에 경제·사회적 큰 피해를 입혔으며 인적 손해도 컸다. 그렇지만 1997년 이후 국가의 경제·사회적으로 현저한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최근 몇년동안 경제 침체이라고 판단된다.

JICA는 타지키스탄에서 경제·사회적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고 이는 지역개발 (물 공동 분배,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 농촌 지역 개발 및 산업 지원), 경제 인프라 개선 (환경보전 및 에너지자원 개발, 운송 유지 보수), 기타 프로젝트 (인적개발, 테러와 마약 밀매 방지 등)로 ODA의 중점 프로젝트이다.

<표 3-25> JICA의 타지키스탄에서의 사업 목록

(단위: 백만엔)

사업명	사업형태	사업분야
하틀론구 식수 개선 및 물공급 ('12-'16/7.79)	무상	지역개발
유류아사망률과 임산부사망률 감소 도달 및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 ('12-'15/9.09)	무상	지역개발
에너지 프로그램, 교통 및 인프라 개선 ('12-'17/4,50)	무상	경제 인프라
행정 시스템, 기관 행정시스템 개선 ('12-'17/4,47); JDS 프로그램	무상	인적 개발

출처: Japan's ODA Data for Tajikistan (mofa.go.jp/policy/oda) 참조

<표 3-26> 일본의 타지크 주요 부문에 대한 공여현황 (2011-15년)

(단위: 백만달러/2015 고정가 기준, %)

부문	주요 사업	금액	비중
경제인프라	[무상]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도로·항공 교통, 금융에너지 (전력, 재생에너지)·통신·교통 정책 등	42.45	39.50
보건	[무상] 보건 정책, 감염병 관리, 기초 보건 인프라	14.38	13.38
교육	[무상] 교육정책, 중등 및 고등 교육, 훈련, 교육설비 등	7.93	7.38
생산	[무상] 산업 (농업, 임업, 관광, 축산 등) 및 통상,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	5.93	5.52

출처: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p. 85 참조

5.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일본과의 협력관계 발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수도 아시하바드에서 2005년에 주일본 대사관은 타국에 비해 늦게 개설하였다. 그리고 2009년도 베르디무하메도프 전대통령이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한 바 있는데 양국 관계 발전에 뚜렷한 주목 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으로부터의 ODA 공여에도 적극적이지 않으며 이는 니야조프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나 지원을 받는 데 소극적이었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7년 첫 일본 ODA로 인해 철도 수송 현대화 프로젝트가 추진된 바 있다.

일본은 2005년에 주 투르크메니스탄 일본 대사관을 개설한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석유화학 단지 건설, 현대화 사업, 철도 및 도로 재건 사업 등의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였으며, 일본 정부도 투르크메니스탄에 ODA 사업 추진 등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 항만 현대화 등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운송, 통신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의 산업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표 3-27> 일본의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ODA 현황

(단위: 백만엔)

년도	유상	무상	기술 협력
2012	-	-	0.44 (0.21)
2013	-	-	0.57 (0.24)
2014	-	-	0.44 (0.21)
2015	-	0.07	0.58 (0.36)
2016	-	-	0.22
총계	45.05	6.27	11.09 (9.36)

출처: Japan's ODA Data for Turkmenistan (mofa.go.jp/policy/oda) 참조

<표 3-28> 일본의 투르크멘 주요 부문에 대한 공여현황 (2011-15년)

(단위: 백만달러/2015 고정가 기준, %)

부문	주요 사업	금액	비중
교육	[무상] 교육정책, 고등 교육, 훈련 등	0.74	28.35
생산	[무상] 산업 (농업, 관광 등) 및 통상,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	0.65	24.90
경제인프라	[무상] 도로·항공·수상 교통, 금융·통신 정책 등	0.24	9.20

출처: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p. 85 참조

소결

중앙아시아에서 JICA 개발협력 성과 사례는 타지키스탄에 위치하고 있는 중학교 건설 프로젝트인데 수원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핸 프로젝트인 '풀뿌리 인간안보 프로젝트'와 키르기즈스탄에서 이식쿨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일촌일품 (OVOP) 프로젝트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과 지방 특산물 개발을 촉진하였고, 이 포로젝트 추진을 통해 수원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였다.[64]

JICA의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일본 원조정책의 기본적인 특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 수원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지원이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경제 인프라 부문 유상원조가 확대되었으며,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경제 인프라, 생산성

[64]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Secondory School No. 29 in Saadi Sherozi Village, Rudaki Jamoat, Vakhsh District; Community Empowerment Project through small business promotion by One Village-One Product Approach in Issyk-Kul Region). JICA,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16

개선 프로젝트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세번째, 철저한 현장주의와 비교우위에 기반한 전략적인 원조사업 추진을 통해 원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네번째, 주요 수원국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차별화된 원조정책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65]

JICA는 우즈베키스탄에대해서 상호 경제협력 잠재력 실현, 즉 경제적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반면에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는 경제·사회 발전지원을 통한 공여국으로서의 입지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차치한 일본의 중앙아시아 3개국 대상 원조의 공통점은 경제 인프라 개선을 중점 부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는 인적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UJC), 카자흐스탄 (KJC), 키르기즈스탄 (KRJC)에서 일본 센터 (Japan Center)가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원국의 제조업 발전 및 수출역량 등 강화 지원하고 있다.

제 4 장 KOICA와 JICA의 비교 분석

KOICA와 JICA는 중앙아시아에 1990년대 후반에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두 국제협력기구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초기 협력 정책의 추진체제와 전개과정이 비슷하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 ODA는 일본의 경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협력 전략이 변화되었고, 프로젝트 규모, 내용 등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점협력국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방향, 개발협력 전략이 전환하게 되었다. 2008년에 신 (新) JICA가 등장하며 그 때부터 대중앙아시아 정책 방향도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1-15년 한국의 중점협력국 계획, 2016-20년 계획에서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이 개조되었다고 볼 수

[65]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p. 87

있다. 초기 KOICA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JICA 정책을 벤치마킹했으나, 즉 동남아시아 협력 전략과 흡사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중점협력국을 설정한 후 KOICA의 대중앙아시아 협력전략이 변환되며, 초기 JICA는 동남아시아 정책을 중앙아시아로 적용하다가 신 JICA 설립 후 대중앙아시아 정책도 바꾸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 KOICA와 JICA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인식 분석을 통해서 국제협력기구들의 정책 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가설 1, 2 확인하고자 한다.

제 1 절 유사점과 차이점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을 비교 분석을 하여 그 지역별 현황과 특징을 KOICA와 JICA의 ODA는 추진체제와 지금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주로 추진되어왔으며, 일본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이 일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66] 그러므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JICA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점투자국가들로 선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에 필연적인 차관을 비롯한 물적·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개발 협력자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아시아 진출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각종 지원을 민간기업에 제공함으로써

[66] 윤석상 (2017). p. 114
중앙아시아인들이 중요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국가 순위는 러시아 (75%), 중국 (49%), 일본 (25%), 터키 (15%), 한국 (12%), 미국 (8%)으로 조사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도 러시아 (61%), 일본 (11%), 중국 (5%), 한국 (3%), 미국 (1%) 순으로 나타났다. 中央アジア地域における対日世論調査 結果概要 ウズベキスタン, カザフスタン, キルギス, タジキスタン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3216.html (검색일: 2019.09.27)

자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국가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67]

KOICA는 JICA의 원조 정책, 지원형태, 지원주체, 지원계획 등에서 서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KOICA는 대중앙아시아의 정책은 일본의 경험을 따르고 있으며 조직을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KOICA와 JICA의 가장 뚜렷한 유사점이 두 국제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수원국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원조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두 국가가 중점협력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KOICA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사무소가 생긴 후 두 국가 간 협력관계가 활성화된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3개국 대상 원조의 공통점은 경제 인프라 개선을 중점 부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다자협의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2004년에는 일본은 중앙아시아에서 협력 주도권을 확대,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지역협력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라는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이 프레임은 외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 (SOM) 외에도 관련 지식인과의 교류를 통한 도쿄회담, 전문가회담, 비즈니스 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2007년에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한·중앙아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사이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례 고위급 (차관급) 다자협의체이다. 한국과 일본 2국가를 위해 중앙아시아는 요충지라는 것을 이러한 활발한 협력 지향으로 알 수 있다.

다음은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ODA는 공여 형태에 따라 양자 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뉘며, 상환 외무에 따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양자 간 협력은 ODA에 소요되는 재원이 유상지원인지 혹은 무상지원인지에 따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여기서 KOICA와 JICA의 추진체제에서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

---

[67] 이재영, 박상남 (2007). p.5

먼저, 한국의 ODA는 유상원조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기획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단독으로 진행한다. 무상원조는 외교부 상하의 KOICA가 시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 ODA의 경우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ODA 추진체제는 200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무상협력기관과 유상협력기관으로 나뉘어 ODA를 진행하였는데, 2008년 10월부터 신 (新) JICA가 발족되어 일원화된 ODA 실행체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8년 이전까지 일본은 경제협력기구로서 국제협력은행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과 무상원기관인 외무성 (MOFA)의 이원화된 원조체제로 진행되었다. 무상자금과 기술협력의 경우 외무성 소관의 JICA가 담당하였으며, 유상자금협력은 국제협력은행의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 Overseas Economic Copperation Fund)이 담당해왔다. 2008년 10월 1일에 일본 ODA 추진체제를 통합하였다.[68]

둘째, KOICA와 JICA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차이점은 ODA 시스템과 구조에 있다. 한국의 ODA 시스템은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KOICA와 JICA의 대중앙아시아와 이루어진 정책의 차이는 KOICA 경우 CIS-중동, JICA는 중앙아시아-코카서스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일본은 더 넓은 범위로 이 지역에 ODA를 제공해 여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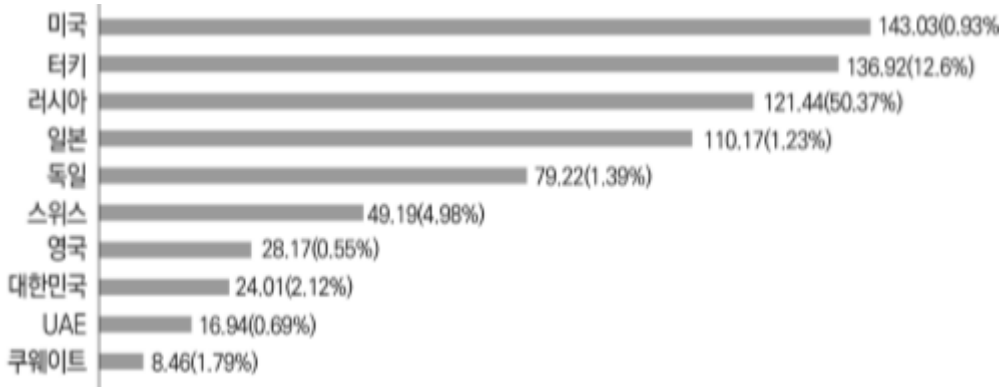
셋째, <그림 4-2>에서 나오듯이 한국과 일본의 중앙사이아에 대한 원조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요 공여국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의 전체 원조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수준이나,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한국의 4배가 넘는 지원을 해왔다. 중앙아시아의 최대 공여국은 미국으로 평균 1억 4,3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뒤에 터키 (1억 3,700만 달러), 러시아 (1억 2,100만 달러), 일본 (1억 1천만 달러), 독일 (7,900만 달러), 스위스 (4900만 달러), 영국

[68] 조혜승 (2012)

(2800만 달러), 한국 (2400만 달러) 등 중앙아시아 주요 공여국이다. 한국과 일본 ODA의 규모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중앙아시아 5개국 CPA 주요 공여국 (2011-2015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2015년 고정가 기준)



출처: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p. 70 참조.

넷째, KOICA와 JICA 중앙아시아 중점 분야에 큰 차이가 있다. KOICA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IT 분야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 2003년 이를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고, 국제 IT 수준에 걸맞은 훈련 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전문가를 장기간 현지에 파견해 IT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도 훈련 센터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IT 전문가 훈련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IT 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교육 만조곧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9]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IT 전문가 훈련 센터 건립 사업, 사업 규모 70만 달러) 또한 KOICA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주요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위한 정보 도서 제공에 관한 법령'에 의거 전국에 14개 정보 도서관을 설립하고, 과학 기술 문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과학 기술 문헌 전자도서관 설립 사업, 사업 규모: 200만 달러). 즉 지원액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정보통신 (ICT)에서 JICA보다 높다. KOICA는 직업

[69] 김진호 외 28명 (2009) p. 554

훈련과 ICT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OICA가 중장기 전략에서 중점 목표와 타겟으로 포방하는 사업 분야의 대부분은 JICA나 USAID (미국 국제개발처)와 비슷하다.[70]

일본은 연수와 전문가 파견 등의 원조형태를 가지고 있고, 경제 부문, 인프라 구축 및 농업에 대한 강조 그리고 자신의 개발협력 모델을 한국에 전파하고자 하는 시도 동질성을 찾을 수 있어 한국의 경험전수 프로그램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국가라고 한다.[71] 일본의 외무성은 경제발전을 빈곤감소보다 더 강조하면서 ODA 지원과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일본 원조의 비교우위로 보고 있다. 그래서 수원국인 중앙아시아 5개국에 경제·사회 인프라 ODA가 높다고 볼 수 있다.[72] 일본은 대동남아시아 ODA 정책과 전략이 성과를 얻었으나, 이러한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우용한 교훈이 될 것이며 이런 개발협력 정책 모델을 중앙아시아에도 적용해보았다. (일본은 세계대전 후 국가건설 경험, 보상 원조를 해왔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경제 분야나 인프라 구축의 강조, 연수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제 2 절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

1. 중앙아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에게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변방에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부터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에너지의 보고로 새로운 시장으로

---

[70] 정우진 (2010) p. 24

[71] 위 책 p. 92

[72] 일본 (JICA)의 수원국에서 인프라 개발 지원에 들어가는 비율이 다른 공여국(한국)의 두 배에 이른다. 2001-2007년까지 섹터 지원으로 분류 가능한 원조를 보면, 일본 경제하부구조에 44.1%를 투자해서 DAC 평균 20.74% 보다 두배 정보 많이 하고 있다.

인식되면서 황금의 삼각지대로 변모하고 있다.[73]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중아아시아를 포함하여 널리 아시아의 협력을 요청하여, 아시아 경제의 순조로운 개발을 위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을 역설하고 중앙아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추진 의지를 강조한다. 한국과 일본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간에 외교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 대중앙아시아 정책 규모, ODA 추이 등이 변화하고 늘어나는 추세이다[74]. 1993년대부터 2017년까지 꾸준한 증가세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KOICA와 JICA의 ODA 추이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든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에 '유라시아 외교', '실크로드 외교'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교통인프라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었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시작한 외교정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에너지협력, 고려인 사업 추진, 문화교류 등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과 관계가 활발해졌다.

한국과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아시아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며 구소련 사회주의체제에 하나의 지역, 인권 문제 많은 지역 (비민주주의 체제, 낮은 세계 자유 지수 등)으로 인식되어 있다. 국제 언론에서 중앙아시아를 언급이 그다지 많지 않다. 사건, 금융위기 발생할 때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예컨대, 2005년의 우즈베키스탄의 아디잔 (Andijan)에서 있었던 민주화 사건, 2005년과 2010년의 키르기즈스탄의 혁명, 중앙아시아 지역의 테러 위협과 극단적 이슬람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만 언급이 가장 많다고 발견되었다.[75] 이러한 정보와 우려 때문에 강대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ODA에도 영향을 미친다.

---

[73] 박상남 (2008)
[74] 남기정 (2006). p. 54
[75] https://rus.azattyq.org/a/centralnaya-azia-glazami-smi/28319498.html (검색일: 2019.10.29)

한국과 일본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우선순위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앙아시아 5개국에 동일한 ODA를 제공하는 게 아리나 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4개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는 역사·문화적으로 한국과 일본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낯선 이슬람과 소비에트체제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에 대해 불신이 남아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 구소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들 ODA 진출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권위주의자 부정부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며 정치 엘리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일본과 카자흐스탄 관계는 그다지 원만하지 못 하였다. 신생 독립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일본의 경제지원을 받는 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고 카자흐스탄의 관료들의 오만한 태도가 일본 정부에게 불쾌감을 심어준 사례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카자흐스탄과 일본 양국 정상의 활발한 방문에 힘입어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화되었다. 두 나라 사이에 '우호, 동반자 관계 및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조인되었고 개발 분야도 다각화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점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2004년 9월 13일과 15일에 북 카자흐스탄에 위치하는 카라간다라는 지역에서 KOICA 소속 요원 2명 피살 사건[76]이 일어났다. 이런 끔찍한 사건, 불안정한 치안 상태 등 까닭으로 카자흐스탄 또는 중앙아시아 이미지가 송산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키르기즈스탄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과의 우호관계가 가장 긴밀하다. 키르기즈스탄이 2015년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일본 지지를 약속하였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서도 키르기즈스탄은 일본의

[76] 신광은 (20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1954 (검색일: 2019.09.15.)

입장을 지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키르기지스탄의 회귀광물 공동지질조사에 일본 기업 참여를 키르기즈스탄 정부가 약속하였다.

2. 중앙아시아의 차별화된 인식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점은 KOICA는 대중앙아시아 초기 개발협력 정책이 JICA를 벤키마킹해서 얼마 후 KOICA가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정책 추세, 프로젝트 분야 등을 변환하였다. 이 연구는 KOICA와 JICA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즈베키스탄 CPS 계획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산업다각화·현대화 등 직면한 전환기적 과제의 대안으로서 한국을 일종의 역할 모델로 간주하여 경제 발전 경험 공유 및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되어 있다.[77] 일본은 현장주의와 비교우위에 기반한 전략적 원조사업 추진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주요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은 경제적 실익과 국의 추구라는 일본 원조정책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정립 지원도 강조하면서 경제적인 성격의 원조 조건으로부터 전략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78]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외교관계, 협력관계 등이 대동남아시아 정책, 전략을 적용해서 아직까지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 방향을 바꾸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본과 아세안 (ASEAN) 고위급 협의체는 2004년부터 개최한 '중앙아시아+일본 대화' 협의체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79] 또한 JICA의 인적자원개발 성공 사례 중에서 일본 센터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몽골, 우크라이나, 우즈

[77]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 (Uzbekistan CPS) 2016 p. 16
[78]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p. 81
[79] Khoshimov N. (2018) p. 39

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에서만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일본 센터에서 일본어,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식 비즈니스 관리 (Japanese-style business management), 일본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등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 기업이 해당국가에 원만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일본에 대한 이해 및 이미지 제고라는 보수적인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80]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중앙아시아를 동남아시아와 같이 협력과 비지니스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것을 증명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일본은 대중앙아시아 협력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협력 정책을 중앙아시아에 적용되고 유지한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CPS 계획을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전략과 중앙아시아 전략과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보듯이 가설 1아 맞는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KOICA는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협력관계 성과 사례를 교훈되서 비슷한 정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기존연구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독립 직후 비슷한 경제성장을 겪어왔지만 2000년대 들어가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위 중소득국 (UMIC)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소득국 (LMIC)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은 여전히 저소득국 (LIC)에 머물러 있다.[81]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면서 UMIC인 카자하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발전소 건설 투자와 에너지 수입 부문 확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키르기즈스탄과

---

[80] The Japan Center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Japan Centers) were established in Central and Southeast Asia which were in transition from planned economies to market economies. The centers aim to become hubs to develop business personnel and to enhanc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host countries and Japan. At present, there are 10 Japan Centers established in 9 countries. Among these, JICA is currently supporting 8 centers in 7 countries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JICA 자료 2018)

[81] 키르기즈스탄은 2014년, 우즈베키스탄 2011년에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전환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14년 상위 중소득국으로 전환되었다.

타지키스탄은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공중 보건 및 교육, 기초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도 가설 2에서 나오듯이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달리 중앙아시아에 적절한 정책과 국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5개국별로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들 대부분의 SDGs 목표를 고려한 국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이 된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결론 및 논의

개발협력은 공여국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공여국의 실천적 개발협력 양상을 살펴보면 협력대상국, 사업형태 및 분야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82] KOICA와 JICA는 ODA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징을 고려해서 ODA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개국에 알맞은 추진접근으로 현지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과거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역로(실크로드) 역할을 했던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때 구소련의 변방으로 전략하였으나, 소연방 붕괴와 9.11테러 이후 국제 전략적 가치가 급증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은 '제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중동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국제기구인 KOICA와 JICA의 대중앙아시아 ODA를 분석했으며 개발협력 정책의 현황과 특징을 밝혔고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국제기구들은 대중앙아시아 정책이 적절한지를 모색해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추진체계와 정책의 목표 면에서 흡사하지만, ODA의 규모, 국가별 정책의 성과 사례, 결

[82] 김복희 (2019)

과, 내용 등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는 KOICA는 중앙아시아에서 초기 협력 전략은 JICA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시간이 지나서 이 전략을 바꾸게 되었다. KOICA의 ODA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이 적절하고도 원조 규모가 미미하고 미진하며 이 지역에서 KOICA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중앙아시아로 도입한 원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KOICA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이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건설, 정보통신, 운송 분야 등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성이 높아 한국의 자본과 기술,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83]

한국의 ODA 원조 규모가 작아서 5개 국가들의 경제·사회·인적 등 개발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양국간 협력관계가 활발화됨으로써 향후 ODA 효과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된다. 한편 일본은 대중앙아시아 ODA 추진에서 산업화와 경제개발 지원, 원조 효과성 제고, 인적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무상 양자원조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유상원조가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차관을 활요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84] 가설 1과 가설 2를 설정하였고 KOICA가 JICA의 대중앙아시아 협력 방향을 초기단계에서 벤치마킹했으며 일본의 개합협력 정책을 교훈으로 참조해왔지만 최근 KOICA의 대중앙아시아 협력 정책이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KOICA는 중앙아시아를 동남아시아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 정책의 기여도가 증가함으로써 중앙아시아 5개국은 두국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으며 앞으로도 개발협력을 추구한다.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 한국, 일본 및 중국 중에서 일

---

[83] 이재영 (2010)

[84]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본에 대한 인식이 좋다. 최근에 중국과 연계된 이슈 (신장 위구르 인권 압박, 토지 문제 등) 때문에 중앙아사아 대중이 반중 감정 (Sinophobia)이 들어나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이 약화되는 추세로 보인다.[85] 또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아직도 러시아의 영향을 받으며 구소련 체제 흔적이 남아있지만 중앙아시아가 자립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되찾으며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도경제성장으로 인식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은 중앙아시아를 위한 필요하고 중요한 세계 파트너들이다. 중앙아시아는 한국과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모범사례로 내세운다.

물론 KOICA와 JICA 주요 사업은 중앙아시아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위주로 실행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ODA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전망이다. 먼저 KOICA와 JICA는 대중앙아시아 ODA 규모 확대를 왜 해야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KOICA와 JICA뿐만 아니라 외교부/외무성이 상정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서의 개발협력에 대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아시아 5개국 각각 특징을 고려해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중앙아시와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러시아, 중국과 어떤 차별화될 점이 있는가 논의가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강대국인 파트너로 한국과 일본으로 삼는다.[86]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의지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전략 방향의 현황, 특징,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KOICA와 JICA의 ODA와 관련

---

[85] Why is anti-Chinese Sentiment on the rise in Central Asia? https://thediplomat.com/2019/10/why-is-anti-chinese-sentiment-on-the-rise-in-central-asia/ (검색일: 2019.10.22)

[86] Alexenkova (2017). p. 43

자료, KIEP 보고서와 자료, 기존 연구에 기초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점 중에서 하나는 일본어로 된 자료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과 2017년까지 일부 국가만 ODA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나머지 국가의 ODA와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한계가 있다.

또는 KOICA와 JICA의 대중앙아시아 ODA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공식 사이트에 공개되는 자료만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두 국제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ODA 사업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공개하지 않는 프로젝트 목록,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었고 KOICA와 JICA의 대중앙아시아 ODA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개되지 않는 사업비 정보, 프로젝트가 있어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이란 범위가 넓어서 KOICA와 JICA의 사업을 하나하나 살펴하지 못한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연구의 종합한 한계점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알기 위해 중앙아시아 5개국 개별적으로 살펴보거나 KOICA와 JICA의 대중앙아시아 ODA 사업 당사자 (파견된 해외봉사자, 중앙아시아 사무소/부서 요원 등) 인터뷰를 이루어지는 정보를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KOICA와 JICA의 다른 수원국과 중앙아시아와 관한 비교연구, 다른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KOICA의 중앙아시아에 정책과 전략 변환 과정 특징, 어떠한 지정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또 하나 제언점은 중앙아시아 5 공화국에 대한 차별화된 개발협력 방안을 추구하면서 이에 각 국가의 특징을 고려하여 국가별 맞춤형 개발 협력 정책의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KOICA와 JICA의 대중앙아시아 ODA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상정하는 '중앙아시아와의 개발협력'을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 문헌

<국문 문헌>

정은숙. 2009. 「한국의 대개도국 외교: 과거, 현재, 미래」. 『세종연구소 세종정책총서』. 한울, 제2부 구사회주의권, pp. 101-159

이지은. 2013. 「한국과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1권 3호, pp. 61-91

김태황. 2016.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ODA)의 성과와 경제협력의 전략적 활성화」.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3호, 81-103

최정희. 2012. 「중앙아시아CIS 지역의 정치 경제 현황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제2012년 제2호권, 95-119

윤석상. 2017.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고찰」. 『국제관계연구』. 제22권 제1호, 113-145

이지은. 2012. 「중앙아시아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협력 우즈베키스탄 아랄 해 오염, 고갈 실태와 한국의 지원 방안」. 『국제개발협력』. 2012(2), 120-139

윤석상. 2016. 「자원·에너지 개발협력의 정치·경제적 동학: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본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NRF) 연구성과물

윤석상. 2017.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고찰: 정책패러다임과 정책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22권 제1호

김여옥. 2018. 「한-중앙아 협력포럼사무국 설치의 당위성 및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Acta Eurasiatica』. vol. 9, no 1, 21-40

박소라. 2018. 「한국-키르기즈스탄 공화국의 협력과 발전상」 [전문가칼럼]

김복희. 2019. 「JICA 해외협력대 사업 50년의 성과와 교훈: 사람중심 개발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제언」. 『국제개발협력』. 14(1). pp. 3-40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 2017. 「중앙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신협력 방향」. 『전략지역심층연구』. 17-02

이유신. 2015.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자원 수송로 다변화 정책의 비교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5(1). pp. 217-241
고재남. 2010. 「중앙아 지역협력의 역내외 환경 실제」. 중앙아시아 국가정체성과 세계화 제 2차 국내학술대회. pp. 399-424
김영근. 2013. 「일본의 전략적 ODA 정책변화 분석 -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95권. pp. 227-244
이경희. 2017. 「유라시아 중점협력국의 개발수요 분석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방안: 우즈베키스탄 농업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연구』8(2). pp. 23-44
조혜승. 2012.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공적개발원조 (ODA) 비교연구」.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심수민, 유성훈. 2017. 「CIS 지역 ICT 협력 전략: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1』제 29권 5호 통권 642. pp. 1-31
정우진. 2010.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KOICA 연구자료 정책연구 2010-07-032
김진오 외 28명. 2009. 「지구촌에 생긴 KOICA의 발자국 1991-2009」. 『푸른세상』 제21-0371호
강명구. 2006.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발전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유라시아연구』제3권 제2호. pp. 115-143

<영문 문헌>

Dadabaev T. 2016. “Japan in Central Asia: Strategies, Initiatives, and Neighboring Pow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Nurgaliyeva L. 2015.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azakhstan: A New Stage in The Strengthening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US-China Law Review, 12(4): 364-387.
Murashkin N. 2019. “Japan And Central Asia. Do Diplomacy and Business Go Hand-in-Hand?”. *Etudes de I'Ifri*, Ifri.
Hickok M. R. 2000. “The other end of the Silk Road: Japan's Eurasian initiative.” Central Asian Survey, 19(1): 17-39.
Takeshi Yu. 2015. “International politics of contemporary Central Asia: Autonomy of Newly Independent states and interventions by Russia, the West, and China.”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journal, (44).

Takeshi Yu. 2003. “Japan’s multilateral approach toward Central Asia”. Tokyo: Iwanami Shoten. 65-84.
Len Ch. and Tomohiko U. 2008. *Japan’s Silk Road Diplomacy. Paving the road ahead.*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Dadabaev T. 2006. “Japan’s Central Asian diplomacy and its implications”. Issue of the CACI analyst.
Gussarova A. 2018.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Mapping Central Asia’s relations with other Asian states”. SEnECA Policy Paper, (5).
Miteva B. 2015. “Japan’s foreign policy towards Central Asia”. ALMANACH VIA EVRASIA Eurasia between Post-Empires and Post-Ideologies, (4).
Dissyukov A. 2019. “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 from idea to implement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dvanced Japanese Studies, vol. 11. pp. 1-21.
Nazarmuhamedov B. 2018. “Japan’s ODA policy toward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dvanced Japanese Studies vol. 10. pp. 169-185.
Dadabaev T. 2019. “Central Asia: Japan’s New ‘Old’ Frontier. Asia Pacific”. Issues, Analysis from the East-West Center No. 136.
Matteo F. 2015. “Growing inter-Asian connections: Links, rivalries, and challenges in South Korean-Central Asian relation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7. pp. 39-48.
Rakhimov M. 2013. “Central Asia and Japan: 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5. pp. 77-87.
Dadabaev T. 2017. “Silk Road” as foreing policy discourse: The contruction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engagement strategies in Central Asia”.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 pp. 30-41.
Paramanov O., Puzanova O. 2018. “Tokyo’s diplomacy in Eurasia: Successes and failures (1997-2017)”.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 pp. 134-142.
Oh J. 2017. “Spread of Concentrated: Where is South Korean inbound education aid aimed and where should it be directed? A compasiron with the Japanese case”. RURDS, 29 (2). pp. 114-134.
Choi J. 2013. “Korea’s cooperation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 Cambodia – Comparison with approaches of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5 (3). pp. 231-239.

<노문 문헌>

Kim G. 2012. "Izvestiya koreevedeniya v Central'noi Azii, Sotrudnichestvo Kazakhstana I Yuzhnoi Korei v sfere kul'turi, obrazovaniya I nauk (Russian)I". pp. 150-210.

Sarsenabi N.A. 2017. "Kazakhstan-Yaponiya: 25 let doveriya, druzhby I partnerstva", International Science complex Astana (ISCA)

Legvold R. 2003. "Strategicheskie perspektivy: vedushie derhzvy, Kazakhstan I central'noaziatskiy uzel". MTI-press Cambridge.

Alexenkova E. 2017. "Sravnitelnii analiz deyatel'nosti sozdannyh v Central'noi Azii formatov "5+ 1" (s uchastiem Ameriki, Yuzhnoi Korei, Yaponii i ES). Mezhdunarodnaya analitika IMI MGIMO article. pp. 36-58.

<인터넷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903141051190394 국토연구원 UNESCAP 및 중앙아시아 8개국과 가뭄모니터링 협력, (검색일: 2019.03.27)

https://www.gov.kr/portal/puborgNews/1003130 코이카, 키르기즈스탄 무상원조사업 통해 30억원 수출효과 달성, (검색일: 2019.03.28)

https://kabar.kg/eng/news/jica-will-assist-in-increasing-investment-attractiveness-of-kyrgyzstan-in-japan/ (검색일: 2019.06.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1954 신광은 2004. 카자흐스탄 한국인 피살사건 범인 잡혀 (검색일: 2019.09.15.)

https://kazakh-tv.kz/ru/view/society/page_199863_kazakhstan-i-koreya-razvivayut-sotrudnichestvo-v-oblasti- (검색일: 2019.09.29)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8018&searchNationCd=101092 (검색일: 2019.09.29)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0113 (검색일: 2019.09.29)

https://www.jica.go.jp/english/news/press/2019/2019071821.html (검색일: 2019.10.11)

https://www.jica.go.jp/english/news/press/2017/170703_01.html (검색일:

2019.10.11)
Uran Kyzy A. (10.2019). Why is anti-Chinese Sentiment on the rise in Central Asia? https://thediplomat.com/2019/10/why-is-anti-chinese-sentiment-on-the-rise-in-central-asia/ (검색일: 2019.10.22)
Dissyukov A. (08.2019). Central Asia and Japan: 15 year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https://thediplomat.com/2019/05/central-asia-and-japan-15-years-of-multilateral-cooperation/ (검색일: 2019.10.22)
Orazgaliyeva M. (05.2019) Japanese, Central Asian ministers discuss how to adapt Japan's success to Central Asia https://astanatimes.com/2019/05/japanese-central-asian-ministers-discuss-how-to-adapt-japans-success-to-central-asia/ (검색일: 2019.10.23)
_____.(05.2019) https://www.japantimes.co.jp/opinion/2019/05/22/editorials/steady-goes-central-asia/#.XbABFugzbIW (검색일: 2019.10.23)
Ozge Nur Ogutcu (03.2017) https://avim.org.tr/en/Analiz/JAPAN-S-POLICIES-TOWARDS-CENTRAL-ASIA (검색일: 2019.10.23)
http://slovo.kg/?p=19856 (검색일: 2019.10.29)
https://rus.azattyq.org/a/centralnaya-azia-glazami-smi/28319498.html (검색일: 2019.10.29)

<온라인 자료>

한국 외교부 http://www.mofa.go.kr/eng/index.do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
한국국제협력단 (KOICA) http://www.koica.go.kr/koica_kr/index.do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https://www.jica.go.jp/english/index.html
KOICA 통계사이트 http://stat.koica.go.kr/
한국 ODA 정보포털 http://www.oda.go.kr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https://www.centralasia-korea.org/
JICA 연구소 https://www.jica.go.jp/jica-ri/index.html
Korea ODA 국가협력전략 (CPS) http://www.odakorea.go.k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Toward Central Asia by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KOICA and the JICA

Kim Elina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cooperative relations and policies with each country in Central Asia since independence with the five republics of Central Asia, Uzbekistan,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and Turkmenistan.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for Central Asia focusing on KOICA and JICA, we reviewe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s approach to Central Asia, and what the two countries' perceptions about Central Asia.

In the five relatively young countries that have been independent for only twenty-eight years, the development ODA of advanced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gaining identity, democratization process and human development.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paying attention to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Central Asian region through cooperation and soft power in the Central Asian reg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Korea and Japan began to take serious interest in Central Asia. Geographically, Central Asia is a region far from Korea and Japan, and interest in Central Asia started much later than in other countries such as Rus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began collaborative diplomacy with Central Asia in the 1990s and pursued an active ODA policy to maintain friendly and close relations with

their countries.
KOICA and JICA are multifaceted in their policy toward Central Asia an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conomic and social spheres of countries. There are three reasons why Central Asia is on the high focus of Korea's and Japan's policy. The first reason is geopolitics, Central Asia is located in the center of Eurasian continent and connects Europe and Asia, which is an important strategic point for business between Korea, Japan and Central Asian countries. Second reason is geoeconomics, there is a lack of natural resouses i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entral Asia is rich in gas, oil, minerals, energy of Caspian Sea. In addition, the proximity to the Caspian Sea makes Caspian Sea region is the center of capital investments and trading center and stimulates business development between countries. The third reason is geostrategy. This reason for the interest in Central Asia is reflected in the security of Asian countries. Central Asian nations are strategically striving to prevent the development and threat of terrorism through borders from Islamic extremism Afghanistan and Pakistan, and are important for maintaining peace throughout Asia. In addition, the growing interest in Korea and Japan on energy security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strategic and cooperative diversification in Central Asi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vided into KOICA and JICA's Central Asian ODA promotion system, policies, size and trends, types and regions as follows
Overseas offices are located in each region supported by KOICA and JICA in Central Asia. In KOICA, the region is divided into Middle East and CIS (Azerbaijan, Uzbekistan, Kyrgyzstan, Palestine, Jordan, Iraq), and in JICA, Central Asia and Caucasus (Armenia, Azerbaijan, Georgia, Kyrgyzstan, Tajikistan, Uzbekistan). The policy frameworks of the two internation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re similar, and they carry out appropriate cooperative projects taking into account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In terms of policy framework, there are policies for all ODA, mid-term policy, national policy, and sectoral policy, where KOICA and JICA have common ODA policy framework.
In terms of the size of the ODA, the size of Korea's ODA is smaller than that of Japan, but Korea's ODA is expanding. Furthermore, in te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KOICA accounted for 11.1% of Central Asia and JICA had more than twice the ratio of Central Asian ODA than Korea.
Based on such result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ODA promotion system. Moreover, you can find the differences in the fields of ODA. Breaking down ODA into Korea,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sector (70.9%)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all sectoral aid. In the case of Japan, education infrastructure is provided mainly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human development. However, Korea and Japan have very similar goals for ODA.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timing of KOICA and JICA's entry into Central Asia. In the mid-2000s, Korea formed a roadmap for Central Asia, officially starting to provide foreign policy and ODA. In the case of Japan, large-scale projects have already been carried out in Central Asia in the late 1990s. In addition, Korea has provided ODA mainly to Uzbekistan as the focus of Korea amo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while Japan provides similar ODA to 5 Central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Korea and Japan have changed their perceptions of Central Asia since the early 1990s, but distrust about the region remains. The fact that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were included in the former Soviet Union had a negative image. They can be said to have a difficult environment for ODA. In particular, national authoritarian corruption cases occur frequently and they have a negative image on the political elite. Howeve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re is potential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Central Asia through the provision of continuous and rational ODA.

Keywords : Korea, Japan, Central Asia, Cooperation policy, KOICA, JICA
Student Number : 2017-25117